

2023 개관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Museum

¶

긴 글 주의 - 문자의 미래는?

Too Long, Didn't Read -

What Is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일러두기



이 책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전시 《긴 글 주의 - 문자의 미래는?》2023. 6. 29.-11.19. 의 전시 도록입니다.



전시 자료의 크기는 세로×가로 순으로 표기하였고 단위는 cm입니다.



이 책에 실린 사진과 내용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캐릭터 등 이미지 일부는 전시 그래픽을 활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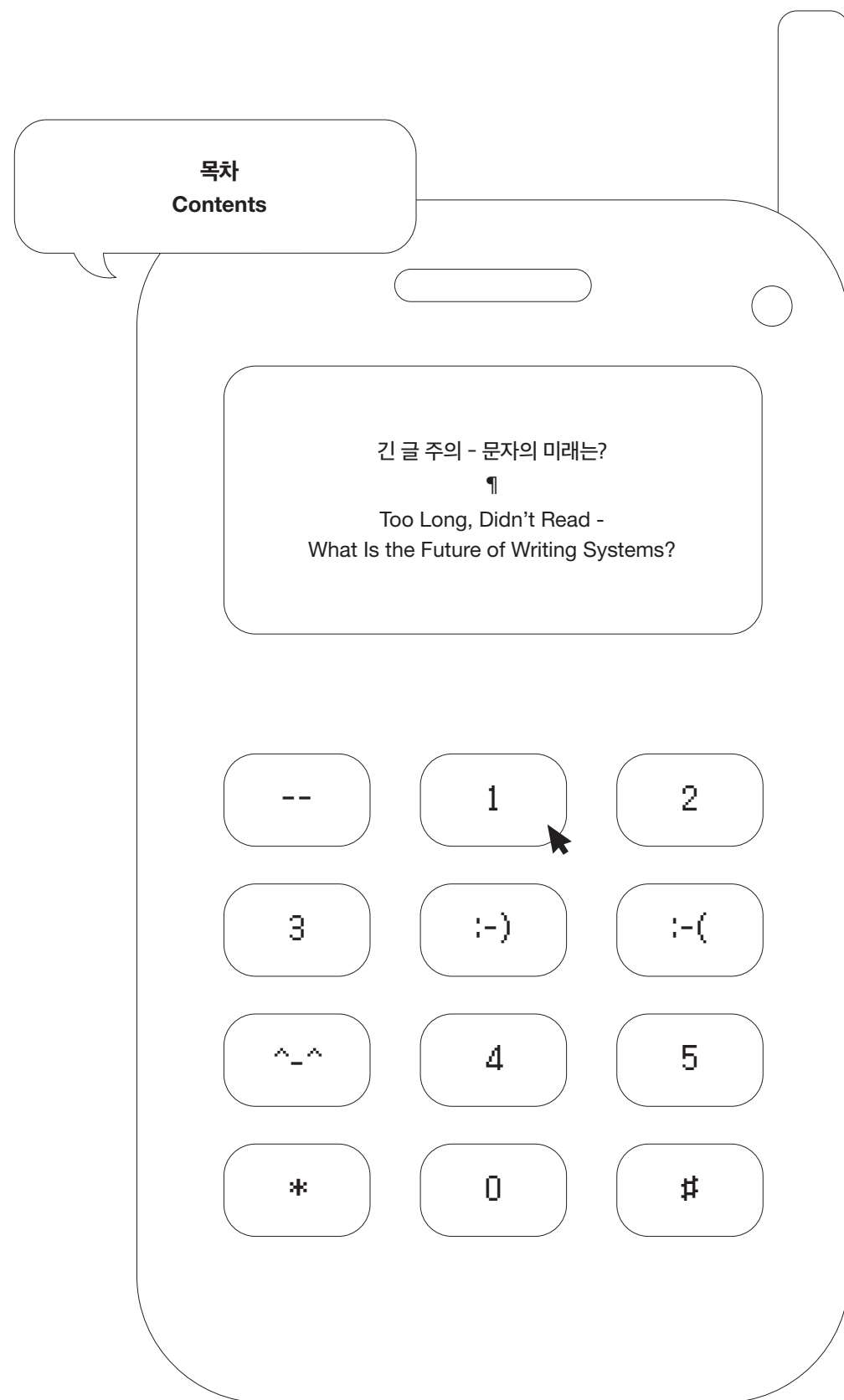
긴 글 주의

문자의 미래는?

Too Long, Didn't Read

What Is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	발간사 Foreword	06
*	소통의 미래를 생각하다 On the Future of Communication	08
	들어가며 Prologue	18
1	그림에서 From Images	24
2	다시 그림으로 Back to Images	38
	2·1 픽토그램(그림 문자) Pictograms	44
	2·2 이모티콘(그림말) Emoticons and Emojis	52
	2·3 그래도 문자는 필요할까 But Are Writing Systems Still Necessary?	62
3	경험에 더 가까이 Closer to Experience	70
	3·1 박물관 홍보담당자의 하루 A Day with Ms. Young, Museum Publicist	74
	3·2 그래도 문자는 필요할까 But Are Writing Systems Still Necessary?	86
	다시 들어가며 Epilogue	100
#	논고 : 문자의 미래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108

국내 최초의 문자 전문 박물관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개관하였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시공간의 범위를 확장하여 문자 탄생 이전으로부터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이르는 긴 시간과, 전 세계의 다양한 문자와 문화를 포괄하는 큰 공간을 담아내는 박물관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문명 발전의 기초이며 현재 우리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문자의 역사를 조망하고 미래의 모습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개관을 기념하는 첫 특별전으로서 우리의 소통 방식과 문자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문자 매체와 비문자 매체 각각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더욱 풍부한 소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소통 방식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 인류는 그림으로 기록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문자가 발명되면서 문자로 대부분의 기록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림과 같은 비문자 매체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픽토그램(그림 문자)이나 이모티콘(그림말), 동영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비문자 매체는 우리의 소통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온라인 환경이 편리해지면서 비문자 매체들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 타인과 쉽게 공유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비문자 매체가 더욱 빠른 기세로 문자 매체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비문자 매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다시 문자를 통해 소통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미래일 것입니다. 이 특별전이 우리가 만들어 나갈 소통의 미래를 상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앞으로도 문자와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3년 6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김 주 원

We are proud to announce the opening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Korea's first museum specializing in writing systems.

Encompassing all of human time and space,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covers the full spectrum of writing systems and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from before the birth of writing to our current digital age. The museum comprehensively explores the fascinating history of writing systems, which has played such a fundamen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the formation of who we are today, and also envisions how those systems may be expected to change and improve in the future.

To commemorate the museum opening, we have prepared a very special inaugural exhibition to contemplate our means of communication and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By considering the different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text and non-text media, the exhibition ultimately seeks to unveil how we can create a more effective and robust communication culture.

Through the course of human history, our means of communication have continuously evolved and developed. Before the advent of written language, early humans attempted to communicate and record their lives through drawings and pictures. Then, through the innovation of writing systems, we began using text to document information and express our ideas, but this did not mean that non-text media became obsolete. On the contrary, as demonstrated by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pictograms, emojis, and videos, non-text media can greatl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ur communication.

In fact,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the internet, non-text media has shown the capacity to spread more quickly and be shared more easily than text. Based on this, some have predicted that non-text media will replace text media at an ever accelerating rate, while others argue that the limitations of non-text media will soon trigger a resurgence in the use of text. But the future is not predetermined; it varies depending on our individual choices, meaning that we have the power to create the future. I hope this special exhibition will help us to imagine the future of communication that we will create.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pledges to continuously seek new ways to enhance the value of writing systems and cultures, and for this, we ask for your ongoing interest and encouragement. Finally, I must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everyone who provided materials and cooperated to make this exhibition possible.

June 2023
Kim Juwon
Director,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박혜원 · 신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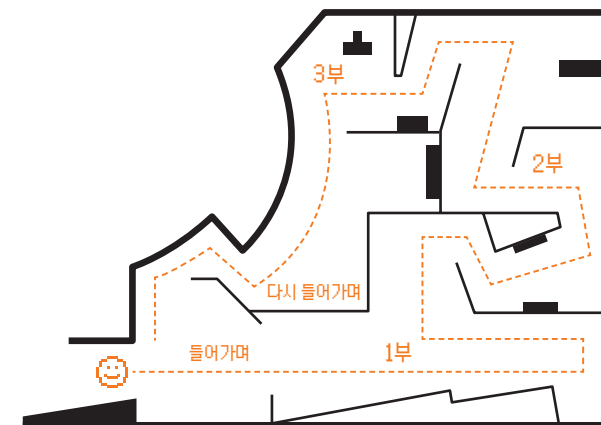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개관 기념 특별전 <긴 글 주의 - 문자의 미래는?>은 시대에 따른 소통 방식의 변화와 문자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긴 글 주의'는 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말로, 게시글이 길어서 읽기 힘들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글을 읽는 일, 즉 문자를 해독하는 일의 어려움도 담겨 있지만,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매체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과거 문자가 없던 시기, 그리고 문자가 널리 사용된 시기, 그 이후 현대에 이르러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비문자 매체의 활용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소통 방식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미지, 영상 등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긴 글은 읽기 힘들고 지루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감각을 자극하는 매체에 길들여져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는 동영상을 보면 되는데 왜 책을 읽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첫 번째 특별전은 그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문자는 분명 인류 문명의 기초를 마련해 준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래를 글로 설명하기보다 고래를 보여주는 것이 빠르고, 요리법을 글로 설명하기보다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빠릅니다. 현대 기술은 그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예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쉽고 빠르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소통하고 있을까요? 문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 특별전을 통해 우리가 소통하고 기록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문자 생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수많은 문자, 비문자 매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매체를 주로 사용하며 주변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 기획에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 중 하나는 관람자가 수동적 위치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생각을 표현하며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자의 미래'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소통 및 기록 방식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하며 전시를 함께 채울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문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전시실 곳곳에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전시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관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전시의 구성은 총 다섯 부분으로 나뉩니다.

문자, 비문자 매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시 주제를 알리는 **[들어가며]**로 시작하여, 문자가 없던 시절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고 상상해 보는 **[1부 그림에서]**,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그림으로 소통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2부 다시 그림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생생한 이미지와 영상을 접하는 최근의 생활을 살피는 **[3부 경험에 더 가까이]**, 마지막으로 문자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다시 들어가며]** 공간까지. 전시를 관람하면서 우리의 소통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시 기획에서 중점을 두었던 또 한 가지 점은 문자든 비문자든 어느 한 매체에 치우치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매체마다 특성이 다르기에, 목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문자 매체는 깊이가 없다거나, 문자 매체는 구시대의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비문자 매체의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대에도 문자 매체는 여전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전을 통해 문자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소통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Park Hyewon
Shin Yu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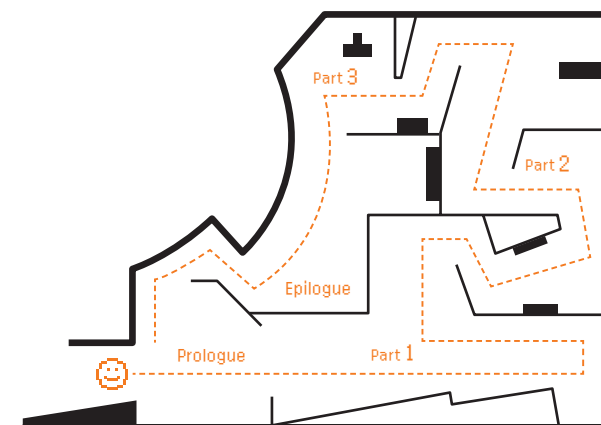
In our inaugural special exhibition, *Too Long, Didn't Read - What Is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examines how human communication methods, and particularly the role of writing, have changed and developed over time. In social media, the acronym "TLDR" ("too long, didn't read") is widely used as a comment to indicate that the preceding post or linked article was ignored because it was too long, and thus burdensome to read. Such comments reveal the perceived difficulty of reading and deciphering text among contemporary people, as well as our increasing preference for non-text media, such as images, photos, and videos.

Through all of human history—from ancient times before the invention of writing to the era dominated by written language to the contemporary digital age—our methods of communication have continuously evolved according to the times, often in conjun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media. Today, the popularity of images and videos is steadily rising, and many people find long written texts too difficult or boring to read. This has led to some concerns about the decline of literacy, as people become more acclimated to sensory-stimulating media. More and more people are now asking why they should read an entire book when they could watch a video instead.

This question served as the inspiration for the first special exhibi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Undeniably, writing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s forming the foundation of human civilization. But at the same time, no one can deny that it is quicker to show someone a picture of a whale than to try to explain the animal in writing, or that watching a video about cooking is usually more effective than reading a recipe. And contemporary technology makes it easier than ever to create and share such photos or videos.

In such an era, how do we communicate? What is the significance of writing, and how might it change in the future? In this special exhibition, we trace how our methods of written communication and documentation have evolv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before considering how they might continue to change in the future. In the process, we reflect on which types of text and non-text media people are using, and how our world is changing as a result of those preferences.

In organizing this exhibition, one of our focal points was to ensure that visitors would not merely be passive spectators, but rather active participants contributing their own thoughts and experiences. Knowing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is helping to create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we designed the exhibition as a platform for collecting opinions about the present and future of writing systems, in which every visitor is invited to answer five key questions



about their own communication and documentation methods. Furthermore, to illuminate the main theme of the exhibition, which may seem a little abstract, we also created a number of interactive spaces to directly engage our visitors. Given that the exhibition deals with many issues and subject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we anticipate that the exhibition will offer every visitor an engaging and enjoyable experience.

The exhibition is divided into five parts. It begins with the "Prologue," which introduces the overall theme and provides information about text and non-text media. "Part 1: From Images" looks back at how early humans used images to communicate before writing, and imagines their daily lives. "Part 2: Back to Images" reflects on how images have continued to be used to communicate in the age of written languag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Part 3: Closer to Experience" examines the increasing prevalence and popularity of images and videos in today's world, driven by technological advancements. Finally, in the "Epilogue," visitors are invited to share their own thoughts and opinions about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Through the full course of the exhibition, you can contemplate how our ways of communication are changing and evolving.

Another point of focus for the exhibition was to avoid showing bias for either text or non-text media. Each medium offers its own distinct advantage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should strategically incorporate both according to our goals.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to dismiss non-text media as shallow or text media as outdated. Even in contemporary times, when the use of non-text media is rapidly increasing, text media still plays an invaluable part in our lives.

We truly hope that this special exhibition helps you to imagine the future of communication and writing systems that we will create together.



긴 글 주의 - 문자의 미래는?

‘긴 글 주의’는 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말로, 게시글이 길어서 읽기 힘들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문자 매체보다 영상, 사진 등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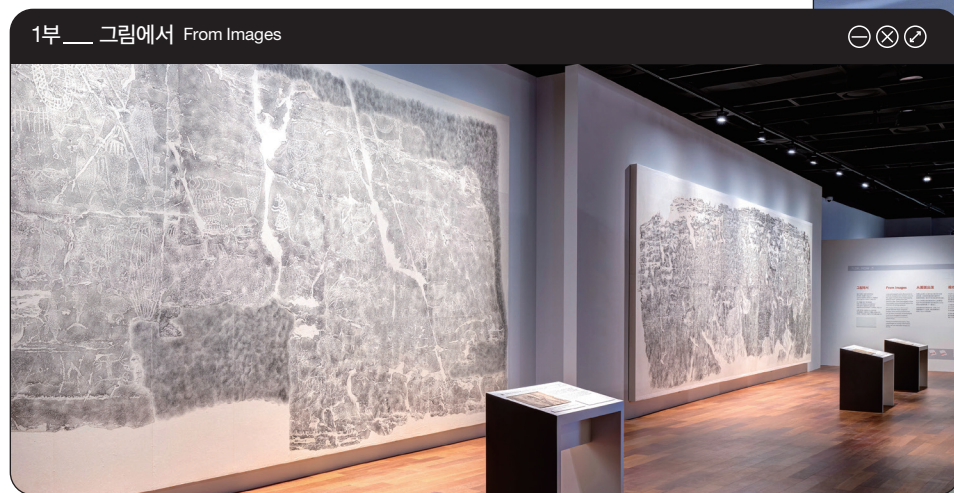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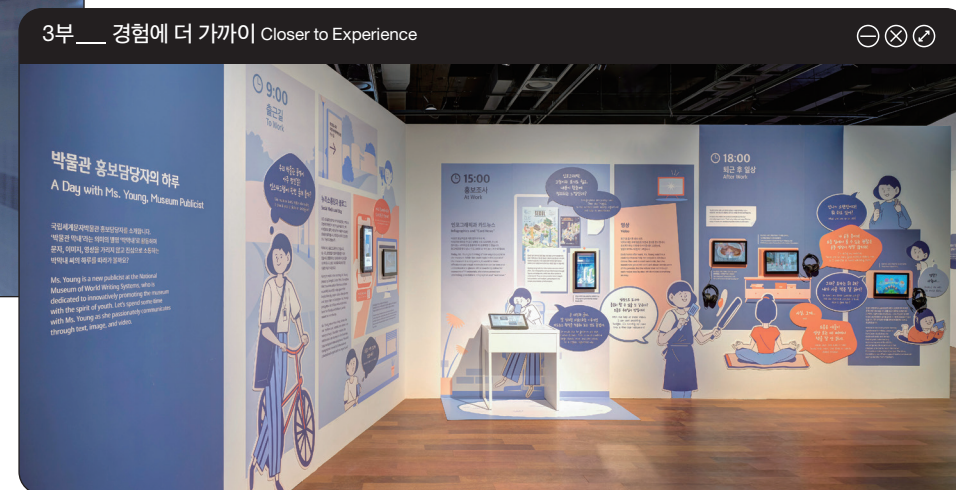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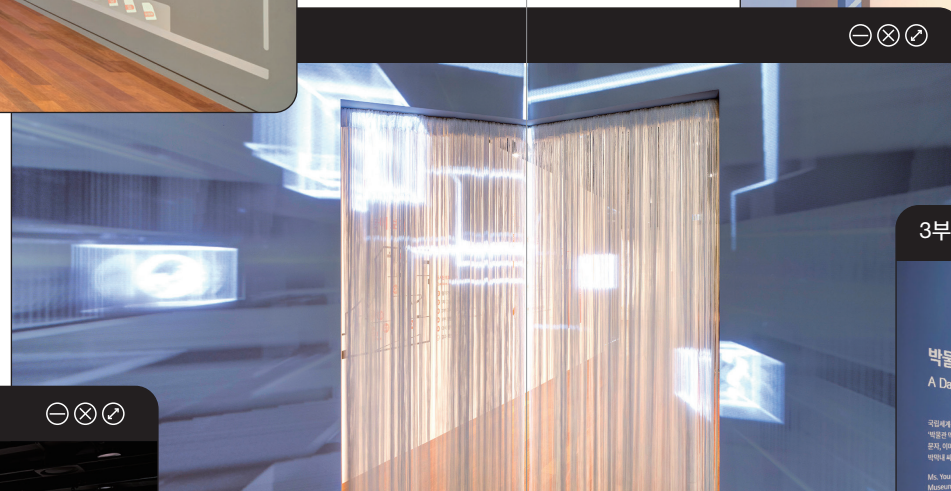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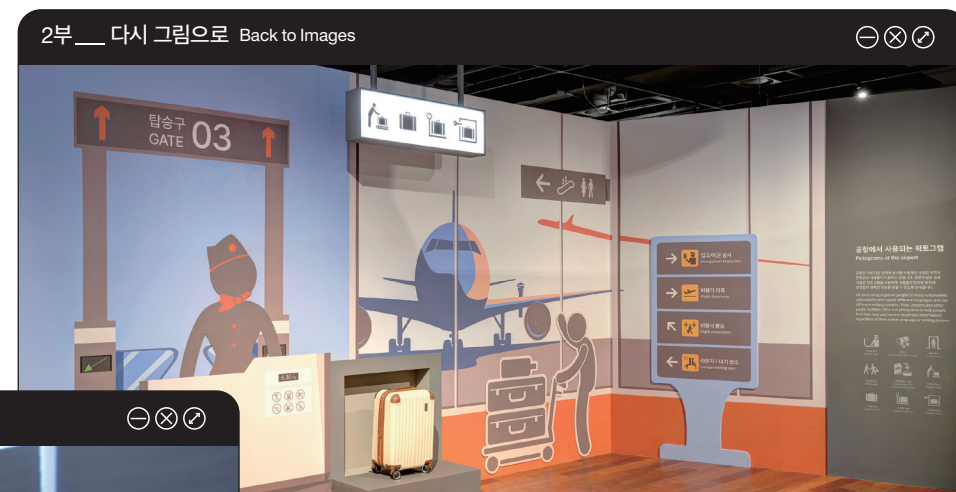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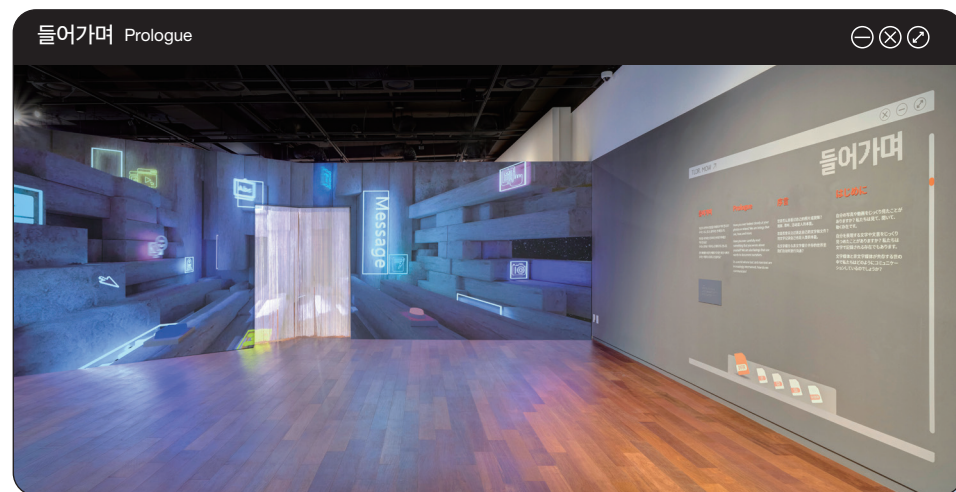


Too Long, Didn't Read -

What Is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TLDR” is an acronym for “Too long, didn’t read.” It is widely used as a comment on social media to indicate that the preceding post or linked article was ignored because it was considered to be too long, and thus burdensome to read. Such comments reflect the contemporary preference for images and video over written text.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Let us know what you think.



Q1

당신은 어떤 소통 방식이 더 편안한가요? Which type of communication are you more comfortable with?	
글(문자 매체) Communicating through writing (text media)	사진과 영상(비문자 매체) Communicating through images or videos (non-text media)

Q2

당신은 어떻게 일상을 기록하나요? How do you usually document your daily life?	
일기나 메모 위주로 기록한다. Writing in a diary or taking notes.	사진이나 영상 위주로 기록한다. Taking photos or videos.

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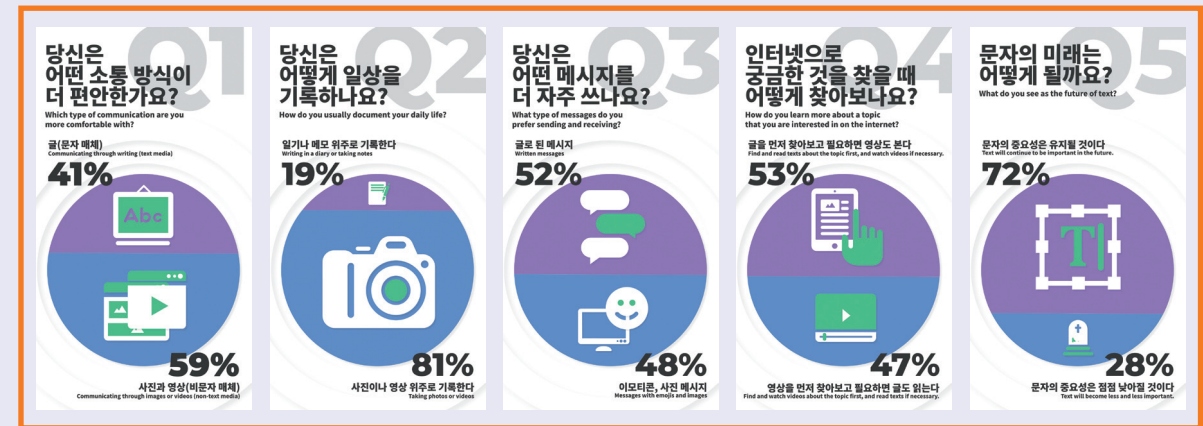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더 자주 쓰나요? What type of messages do you prefer sending and receiving?	
글로 된 메시지 Written messages	이모티콘, 사진 메시지 Messages with emojis and images

Q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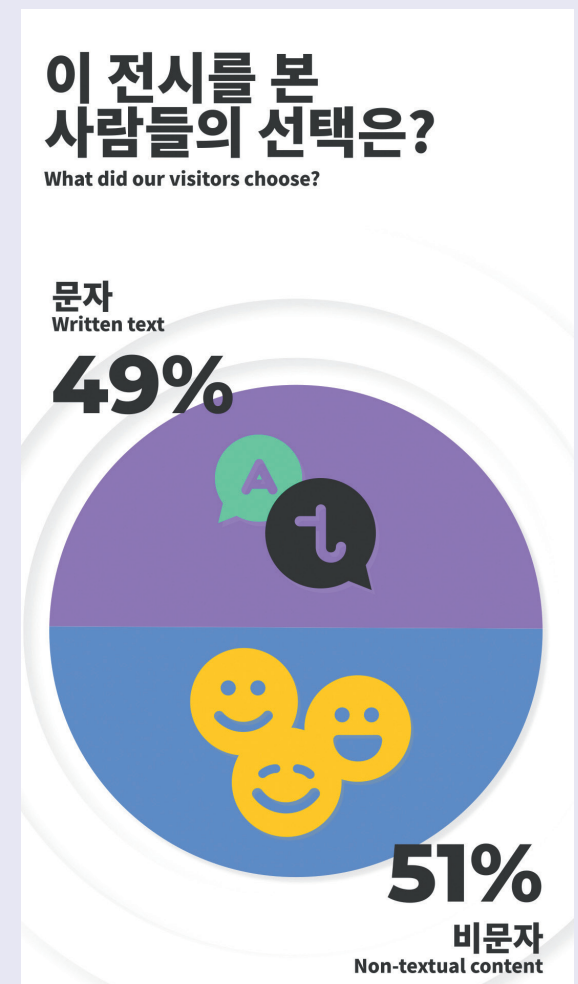
인터넷으로 궁금한 것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보나요? How do you learn more about a topic that you are interested in on the internet?	
글을 먼저 찾아보고 필요하면 영상도 본다. Find and read texts about the topic first, and watch videos if necessary.	영상을 먼저 찾아보고 필요하면 글도 읽는다. Find and watch videos about the topic first, and read texts if necessary.

Q5

문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What do you see as the future of text?	
문자의 중요성은 유지될 것이다. Text will continue to be important in the future.	문자의 중요성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Text will become less and less important.



* 연출 예시 이미지입니다.



들어가며

¶
¶
¶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보고, 듣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

자신을 나타내는 문자와 문서에 주목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문자로 기록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

문자 매체와 비문자 매체가 뒤섞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을까요?

Prologue

¶
¶
¶

Have you ever looked closely at your photos or videos?
We are beings that see, hear, and move.

¶

Have you ever carefully read something that you wrote about yourself?
We are also beings that use words to document ourselves.

¶

In a world where text and non-text are increasingly intertwined,
How do we communic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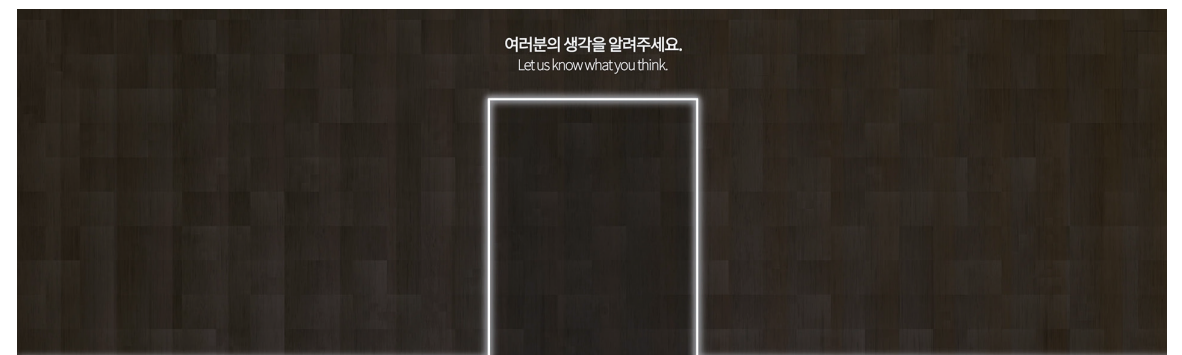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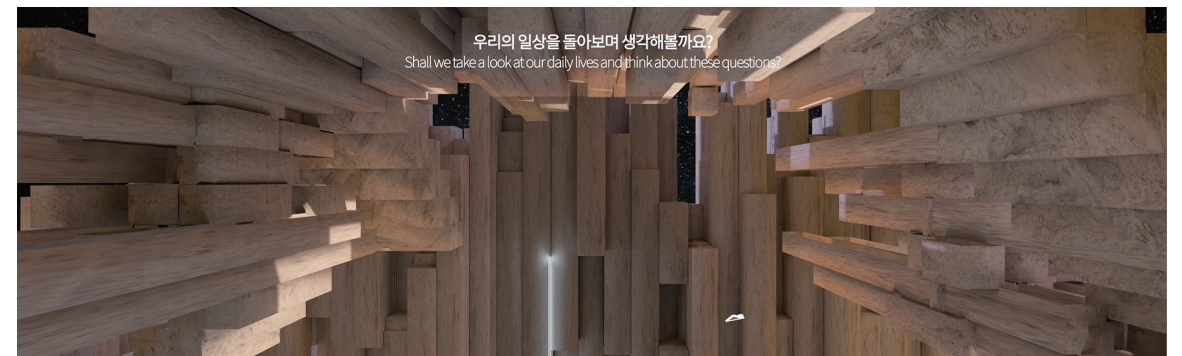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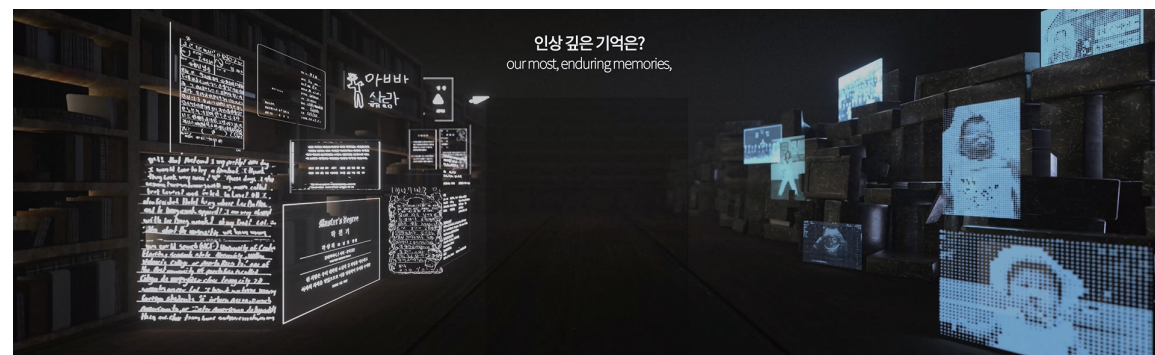
Prologue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What Is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that we make together ?



그림에서 ...



울산 태화강 상류 대곡천에는 큰 바위 그림들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새겨진 이 그림들은 문자가 없었던 시절의 기록입니다.



이 그림을 새긴 옛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을까요?
아직 문자가 발명되지 않았기에 어떻게 내용을 표현할지 고심했을 것입니다.



비록 문자를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옛사람들은 그림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림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1

From

Images ...



Large petroglyphs were discovered on rocks by Daegokcheon Stream,
around the upper reaches of the Taehwagang River in Ulsan.
Dating from the Neolithic Age, these petroglyphs show
how people communicated before the invention of writing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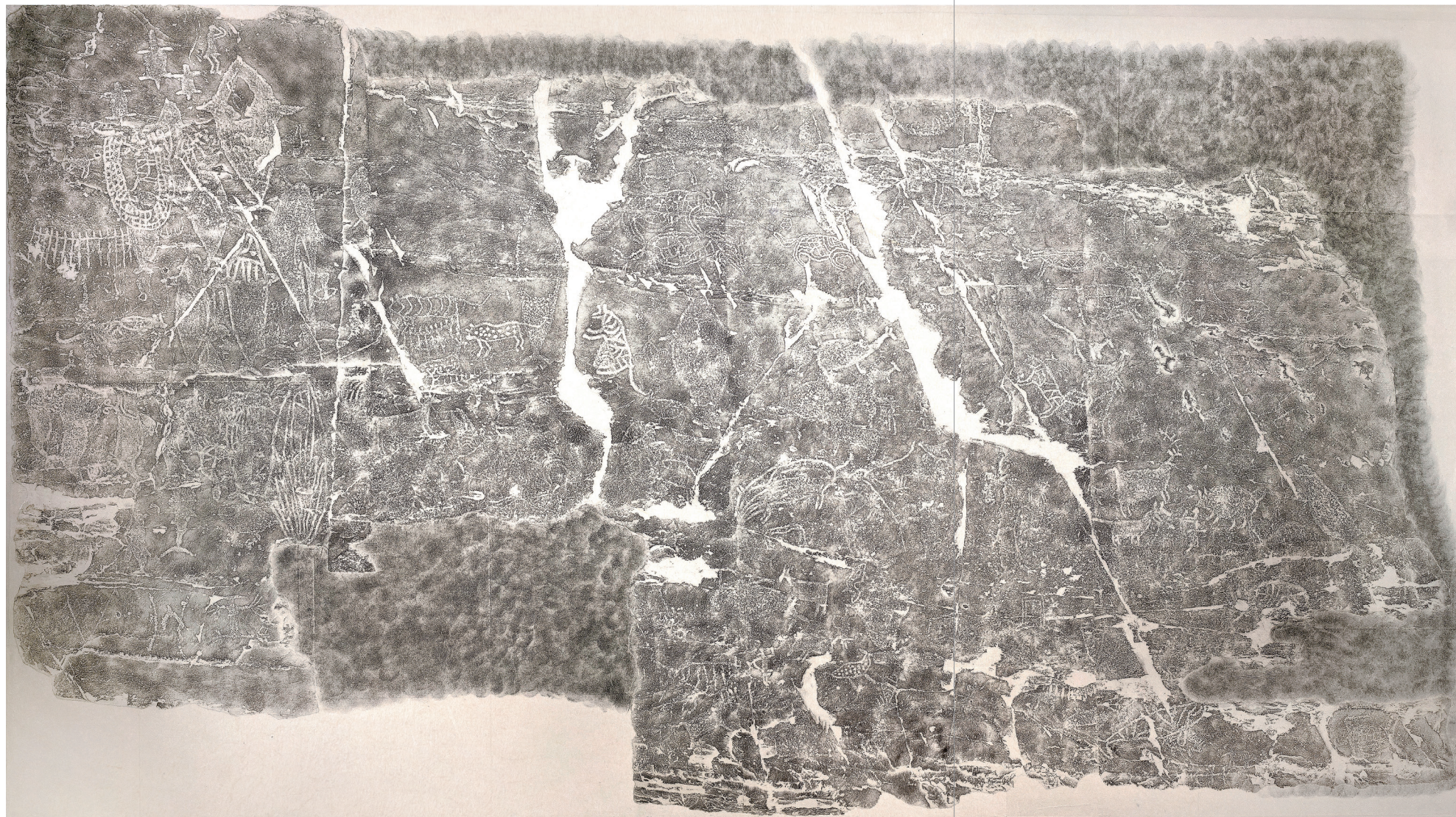
What types of stories did ancient people tell with these engraved images?
Since writing systems had not yet been invented,
ancient people must have struggled to express themselves and
communicate in written form.



Having no written characters, they used images to convey information.
Today, we can read their images as st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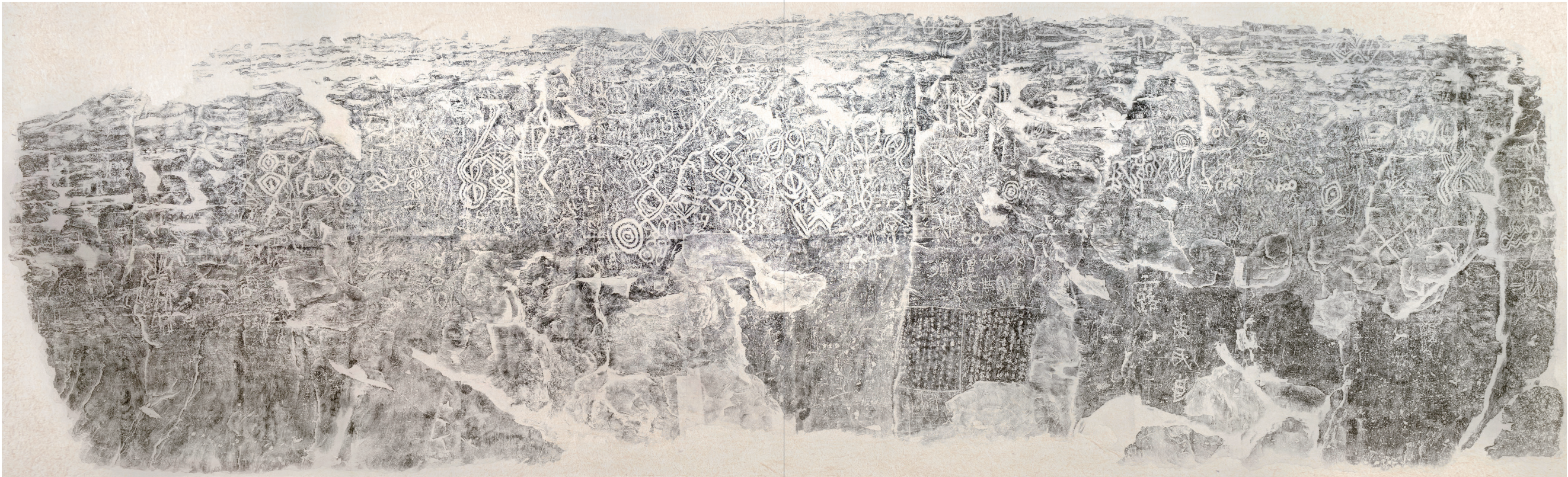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탁본
Rubbings of Petroglyphs from Bangudae, Daegok-ri
340×575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바다 동물과 육지 동물, 사냥하는 장면 등 다양한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암각화에 표현된 고래, 사슴, 멧돼지 등 동물과 사냥의 모습은 사냥감이 풍성해지고 사냥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암각화의 제작 시기는 신석기 시대부터로 추정됩니다.

The petroglyphs from Bangudae, Daegok-ri, which are believed to date from the Neolithic Age, include many different images, including various marine animals, land animals, and hunting scenes. Images of whales, deer, wild boars, and hunting seem to represent prehistoric peoples' wishes to achieve a successful hunt, procuring many prey.





천전리 암각화 탁본
Rubbings of Petroglyphs from Cheonjeon-ri
 282×931.5

천전리 암각화에는 사람, 동물, 기하학적 문양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기하학적 문양은 천전리 암각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동심원, 마름모 등 다양한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신앙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기하학적 문양은 청동기 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petroglyphs from Cheonjeon-ri include people, animals, and most notably, an abundance of geometric symbols. These symbols, which include concentric circles and diamond shapes, are believed to date from the Bronze Age, but their exact meaning has not yet been deciphered. They may have a religious meaning, or represent wishes for prosperity or fert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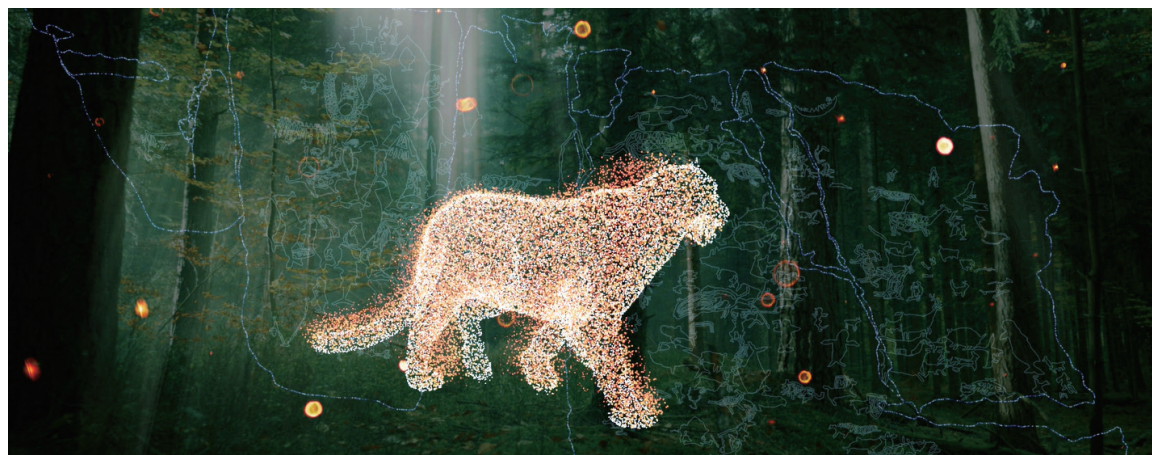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Interactive media artwork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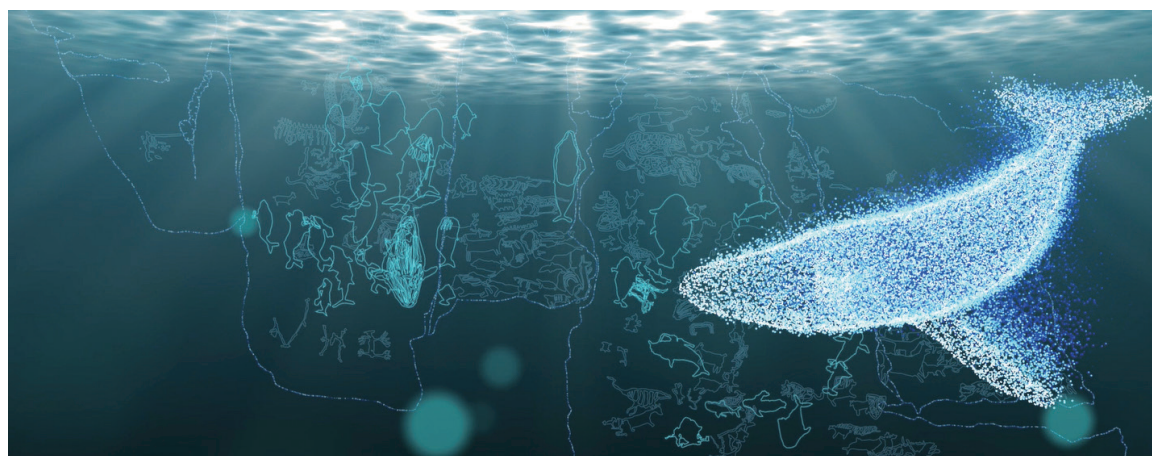
Petroglyphs from Bangudae, Daegok-ri



*



*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Interactive media ar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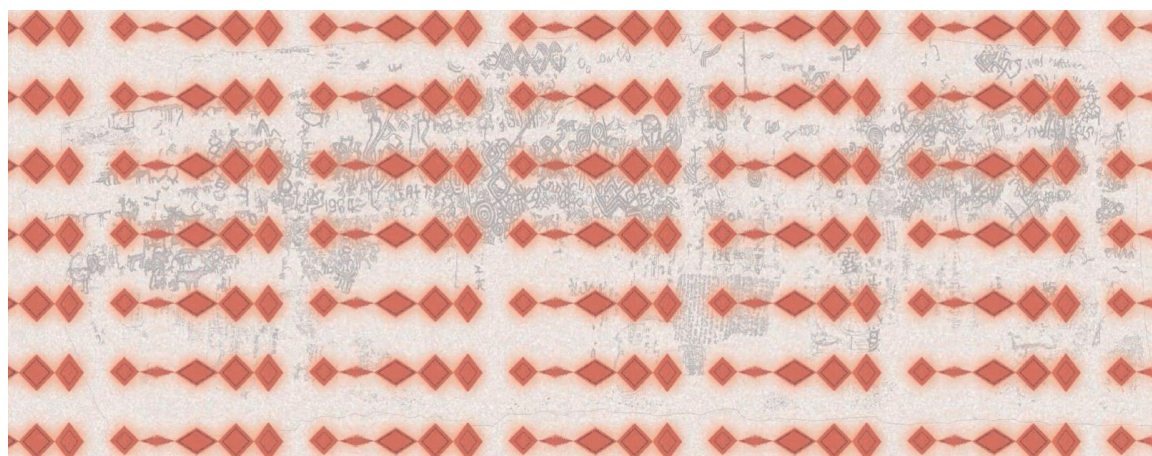
천전리 암각화 Petroglyphs from Cheonjeon-ri



*



*





세 줄 요약

Three-Line Summary

- 우리는 선사시대를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하지만 암각화를 보고 당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 문자가 없던 시대에 그림은 훌륭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
- Ancient history has not been passed down to us directly.
 - But we can still try to imagine life in ancient times through petroglyphs.
 - Before writing systems were created, people often used images to communicate.



... 다시 그림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문자를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문자를 쓰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쉽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의 혁신적인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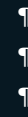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림도 문자처럼 쉽게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림은 어떻게 문자를 대신하여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 Back to
Images



People have used written language for a long time, and understandably so.
The first alphabets and writing systems were a revolutionary means of communication,
since written language is more accurate and easier to understand than images.



But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has brought many changes.
Today, images can be shared and stored just as easily as text.



In the contemporary era, how do we communicate with images, rather than text?







픽토그램(그림 문자)

Pictograms

국제표준규격 픽토그램은 누가 정하나요?

How are the international standard pictograms selected?

국제표준규격 픽토그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소속된 '그래픽상징 기술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관리합니다.

The international standard pictograms are selected and managed by Technical Committee 145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Graphical Symbols, or "ISO/TC 145" for short.

우리나라에도 픽토그램 표준이 있나요?

Does Korea have its own standard pictograms?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정책 소속인 '한국표준협회'에서 안전과 관련된 픽토그램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In Korea, the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under th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is responsible for creating or choosing standard pictograms related to facilities and safety.



그림은 어린이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날마다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픽토그램은 글 대신 그림으로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림 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글을 못 읽거나 언어가 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Sometimes we might think that pictures are just for children, but in fact, everyone looks at pictures almost each and every day.

"Pictograms" express meaning in simple images, rather than with text. The pictures in pictograms can be quickly recognized at a glance and easily understood by anyone, even people who cannot read or speak the local language.



픽토그램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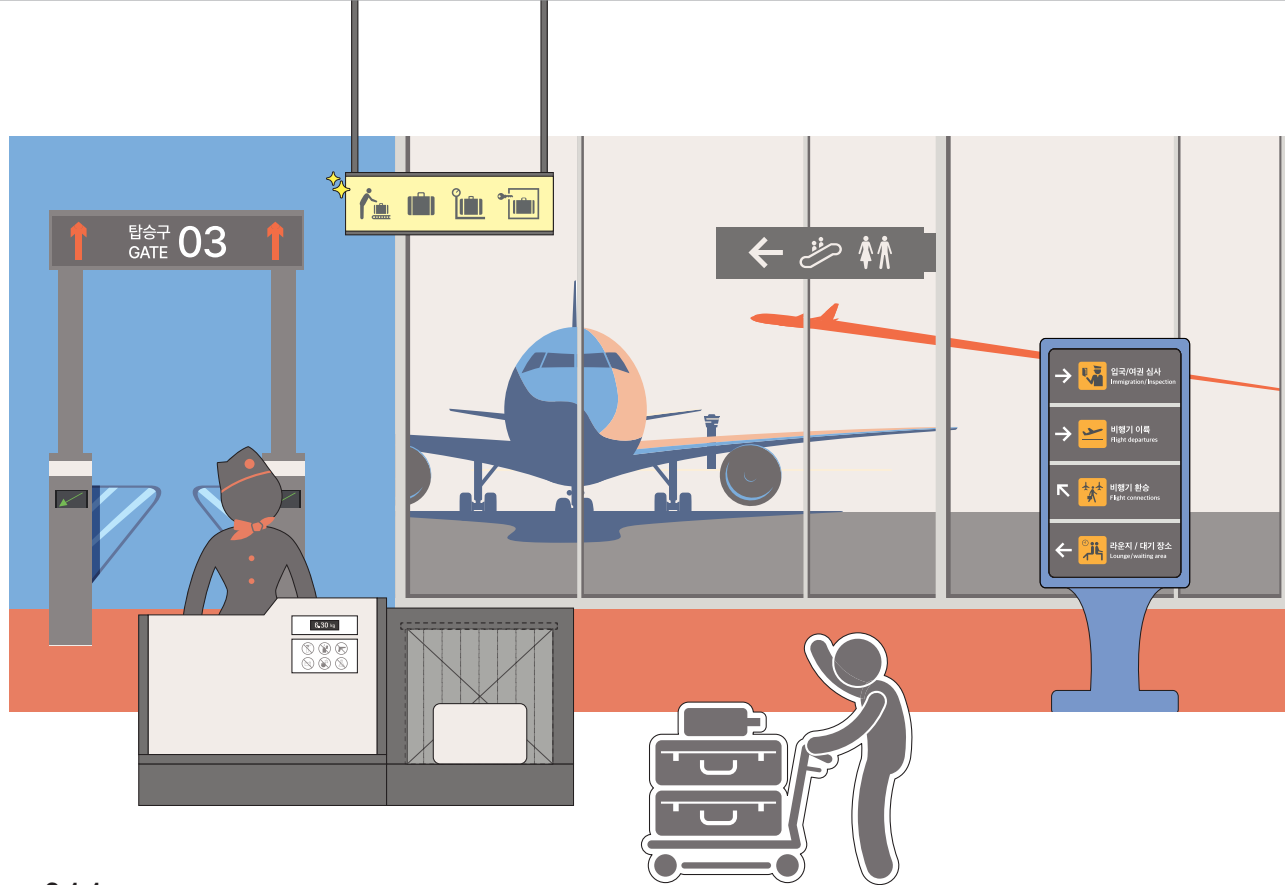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픽토그램 표지입니다. 비상탈출구와 소화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을 통해, 안전을 중요시하는 공사 현장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Pictogram Signage



These are some of the signs with pictograms that were displayed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The pictograms showing the location of emergency exits and fire extinguishers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safety at a construction site.





2.1.1 공항에서 사용되는 픽토그램 Pictograms at the airport

공항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공항과 같은 공공시설은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언어와 문자에 상관없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Airports bring together people of many nationalities and cultures who speak different languages and use different writing systems. Thus, airports and other public facilities often use pictograms to help people find their way and receive important information, regardless of their native language or writing system.



수하물 검사
Baggage check



환전소
Bureau-de-change
or money



보안 검색
Security check



만남의 장소
Meeting point



여권을 펴서 스캔
Open passport and
place on scanning device



수하물 찾는 곳
Baggage reclaim



수하물 취급
Baggage chec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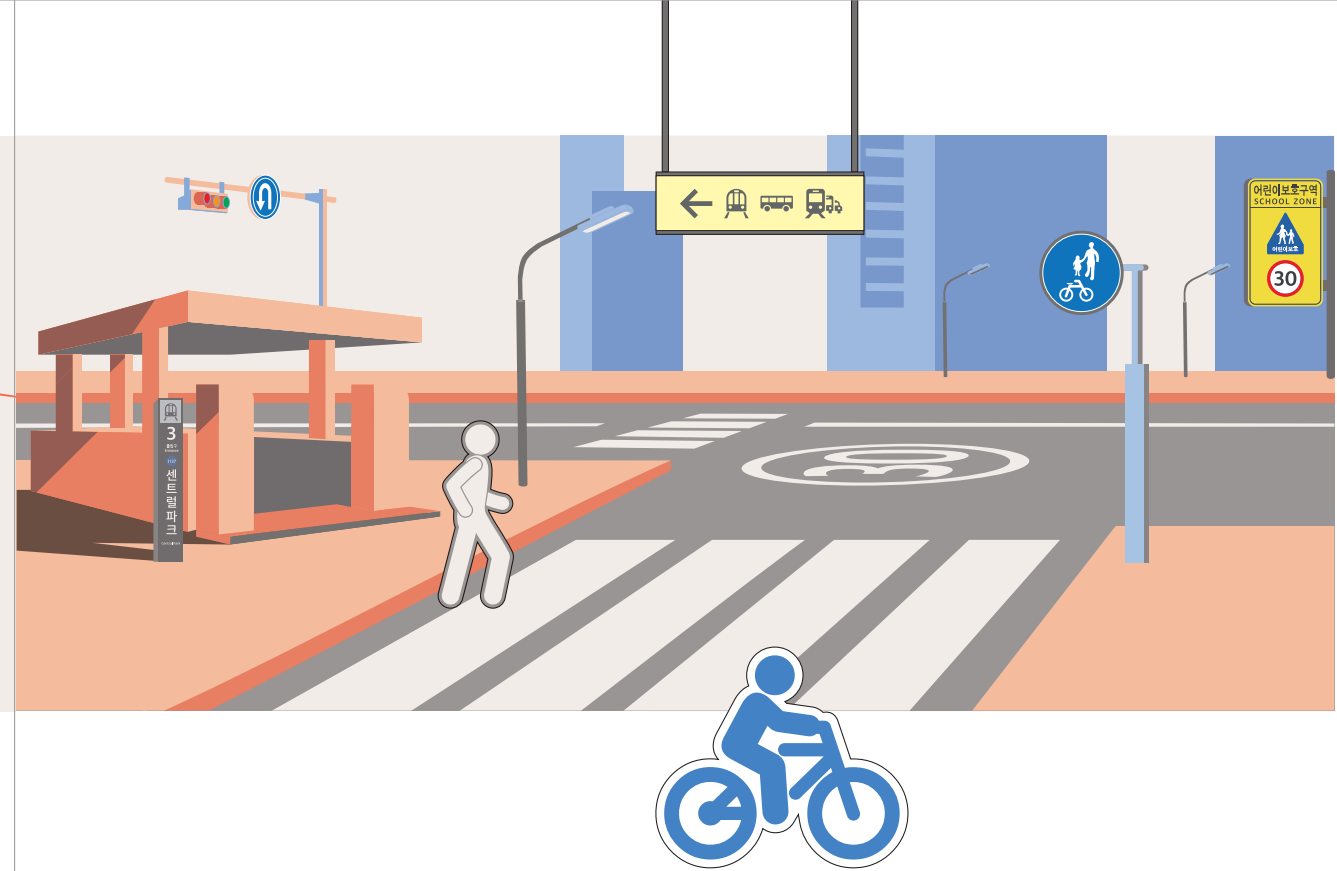


수하물 계량
Baggage weighting



수하물 보관소
Baggage lockers

* KS S ISO 7001:2017 그래픽 심볼 - 공공 안내 심볼(Public information symb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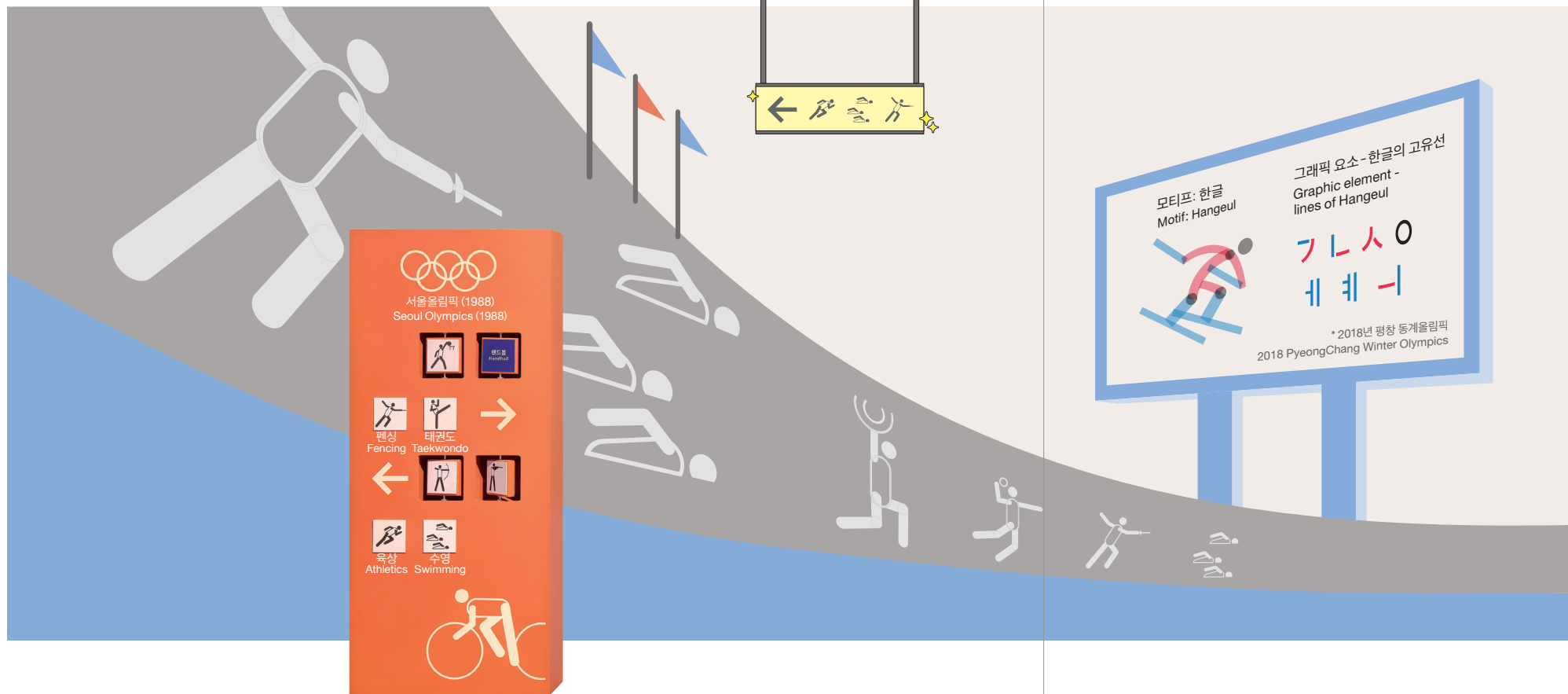


2.1.2 도로에서 사용되는 픽토그램 Pictograms on the road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건널 때, 표지판의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을 모르거나 잘못 알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표현되어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도로 표지판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The information on road signs is crucial for both drivers and pedestrians, since any misunderstanding of the rules could easily lead to accidents. Thus, pictograms that can be quickly recognized by anyone are used to maintain order and ensure everyone's safety.





2.1.3

운동 종목을 나타내는 픽토그램

Pictograms for sports

운동 종목을 나타내는 픽토그램은 올림픽과 같은 국제 체육행사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특징적으로 잡아낸 픽토그램을 통해 각각의 운동 종목을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Pictograms that represent different sports are very useful at international sports events, such as the Olympics. Each sport or game can be intuitively identified through pictograms that capture the characteristic movements of the body.



올림픽 픽토그램

올림픽 픽토그램에는 개최국의 문화적 특색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글의 조형적 특징을 응용한 픽토그램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전각의 느낌을 살린 픽토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Olympic Pictograms

Olympic pictograms often incorporate representative cultural features of the host country.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or example, the pictograms for each game were specially designed based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Hangeul. For the 2022 Winter Olympics in Beijing, the pictograms were inspired by Chinese traditional seal engraving.

알파인 스키 Alpine skiing (speed) 봅슬레이 Bobsleigh 컬링 Curling 피겨스케이팅 Figure Skating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2018 Beijing Winter Olympics



이미지 제공: 국제올림픽위원회(IOC)





2.1.4

문화시설에서 사용되는 픽토그램

Pictograms at cultural facilities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문화시설을 방문할 때가 많습니다. 문화시설의 안내표지판에도 다양한 픽토그램이 사용됩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는 어떤 픽토그램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While traveling, many people love to visit cultural facilities, such as museums. Thus, cultural facilities often use pictograms in their signs to help guide international visitors.

Which pictograms are being 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픽토그램 Pictogram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화장실
Toilet



장애인 화장실
Disabled toilet



엘리베이터
Elevator



비상구
Exit



휴게실
Lounge



물품보관소
Locker



뮤지엄샵
Art shop



점자표기
Braille alphabet



휴대폰진동
Vibration mode

픽토그램 이야기

Pictograms of the World and Pictograms Reflecting the Times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만큼 특이한 픽토그램도 많습니다. 세계의 재미있는 픽토그램을 만나보세요.

Every country and culture has some unique pictograms. Let's take a look at some interesting examples of pictograms from around the world.

스코틀랜드
Scotland



어린이용 표지판
Special signs for children

호주
Australia



캥거루 주의
Beware of kangaroos

루마니아
Romania



취객주의
Beware of drunk people

미국
USA



떨어지는 소 주의
Beware of falling cows

중국
China



과적 화물차 경고
Overloaded truck warning

픽토그램은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영유아 동반 좌석’ 픽토그램은 아이를 안은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최근에는 성별을 특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함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픽토그램도 생겨났습니다.

To keep pace with the changing times, pictograms are constantly being modified or newly created.

In the past, for example, signs identifying priority seats for pregnant women, the elderly, and “people with small children” often included a person wearing a skirt holding a child to represent the latter category, but today's signs are more likely to be gender neutral.

Also, in the wake of Covid-19, we have seen many new pictograms specifying rules related to wearing masks and social distancing.



영유아 동반 좌석
Priority seats for people with infants



마스크 착용
Masks required



사회적 거리 두기
Social distancing



이모티콘(그림말)

Emoticons and Emojis

01 이모티콘의 시작
Origin of Emoticons

이모티콘의 초기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모티콘의 시작에 관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1982년 9월 19일, 카네기 멜론 대학의 스코트 엘리엇 파흘만(Scott Elliott Fahlman, 1948-) 교수가 전자 게시판에 글을 쓸 때 그 글이 농담인 경우에는 기호로 웃는 얼굴 표시를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글 자체만 읽어서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What was the very first emot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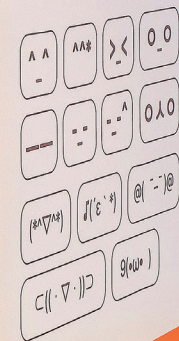
The person most often credited with "inventing" emoticons is Professor Scott E. Fahlman (b. 1948) of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story, on September 19, 1982, Professor Fahlman suggested that when writing on an electronic bulletin board, a smiley face symbol—:—) —could be used as a "joke marker" to indicate that the preceding statement was meant as a joke.

"I propose that the following character sequence for joke markers :—)"

02 한국의 이모티콘
Emoticons of Korea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 인터넷에 연가 소설 등에 등장하는 인물을 연애했습니다. 영아권 이모티콘이 큰 주목을 받으며, 눈모양을 강조한 이모티콘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문자를 강조적으로 조합하여 여러 가지 표정 표현을 묘사하는 이모티콘이 유행하였습니다.

By the early 2000s, emoticons had become quite popular in Korea, where they were often used in online web fiction, or "internet novels." In many cases, emoticons in Korea and Japan creatively combine various symbols and characters to represent facial expression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eyes.

03 경 이모티콘
Korea Emoticons

경 이모티콘은 주로 인터넷 소설 등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연애했습니다. 영아권 이모티콘이 큰 주목을 받으며, 눈모양을 강조한 이모티콘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문자를 강조적으로 조합하여 여러 가지 표정 표현을 묘사하는 이모티콘이 유행하였습니다.

경 이모티콘은 주로 인터넷 소설 등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연애했습니다. 영아권 이모티콘이 큰 주목을 받으며, 눈모양을 강조한 이모티콘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문자를 강조적으로 조합하여 여러 가지 표정 표현을 묘사하는 이모티콘이 유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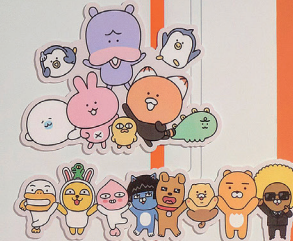
04 캐릭터 이모티콘
Character Emojis

그림 이모티콘은 점점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라인 등에서 개발한 캐릭터 이모티콘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작가들의 개성있는 이모티콘이 유료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모티콘에 소리나 움직임을 넣어 더 생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이모티콘은 못 참지
We gotta have our favorite emojis!

메신저 앱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료로 다양한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료 이모티콘은 메신저 앱이나 유료 이모티콘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essenger apps provide free emojis for all users, but according to one survey, 73.8% of users also use emojis that they purchased separately.



이모티콘 제작 영상
Video About Making Emojis

이모티콘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국립한글박물관이 어린이 체험실 캐릭터 '해리포터스'가 이모티콘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How are emojis created?
This video shows how the "Hangeul Letter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could be made into an emoji.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은 그림을 말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모티콘을 좋아할까요?

대화할 때 우리는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 말투, 동작으로 많은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신나는 표정, 미안한 표정, 억울스러운 동작 등 이모티콘은 글로 전하기 힘든 느낌을 전해 줍니다.

픽토그램이 공적인 의사소통을 돕는다면, 이모티콘은 사적인 의사소통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Have you ever sent an emoticon to your friends? Today, people are using more and more emoticons.

Why do we love emoticons so much? When we communicate in person, we express a lot of information through our facial expressions, tone of voice, and gestures. Emoticons showing expressions of excitement, apology, or laughter are a fun and friendly way to share feelings that are difficult to convey with writing alone.

Just as pictograms enhance public and formal communication, emoticons enrich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2.2.1

이모티콘의 시작

Origin of Emoticons



이모티콘의 초기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모티콘의 시작에 관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1982년 9월 19일, 카네기 멜론 대학의 스콧 엘리엇 팔먼 교수가 전자게시판에 글을 쓸 때 그 글이 농담인 경우에는 기호로 웃는 얼굴 표시를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글 자체만 읽어서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What was the very first emoticon?

The person most often credited with “inventing” emoticons is Professor Scott E. Fahlman (b. 1948) of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story, on September 19, 1982, Professor Fahlman suggested that, when writing on an electronic bulletin board, a smiley face symbol— :-) —could be used as a “joke marker” to indicate that the preceding statement was meant as a joke.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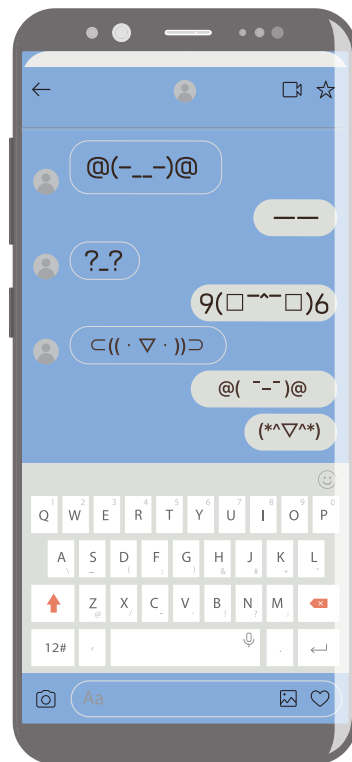
한국의 이모티콘

Emoticons of Korea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 이모티콘이 인터넷 소설 등에 사용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영어권의 이모티콘과 달리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눈 모양을 강조한 이모티콘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후 다양한 기호와 문자를 창조적으로 조합하여 여러 가지 표정과 몸짓을 묘사하는 이모티콘이 유행하였습니다.

By the early 2000s, emoticons had become quite popular in Korea, where they were often used in online web fiction, or “internet novels.” In many cases, emoticons in Korea and Japan creatively combine various symbols and characters to represent facial expression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eyes.



2.2.3

그림 이모티콘

Emojis

기호와 문자로 만든 단순한 형태를 넘어, 그래픽을 활용한 그림 이모티콘이 만들어졌습니다.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 그림이 이모티콘의 원래 의미에 가깝지만, 사물이나 기호 등을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들도 이모티콘(이모지)으로 불리며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Shortly after the rise of emoticons, which are formed by combining keyboard symbols, computer designers created “emojis,” which are small graphic images that are often intended to express an emotion or reaction. The earliest emojis generally consisted of facial expressions, but they soon grew to include symbols and images representing objects.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은 옥스퍼드 사전이 2015년에 정한 ‘올해의 단어’입니다. 이모티콘을 ‘올해의 단어’로 선택한 것은 옥스퍼드 사전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인의 소통에서 이모티콘의 중요성이 커진 것을 보여줍니다.

This emoji of a face laughing to the point of tears— known as “Face with Tears of Joy”— was selected as the 2015 Word of the Year by the Oxford Dictionaries, marking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an emoji, rather than a traditional word, received this honor. The fact that this distinction went to an emoji signals the huge role that these unique images play in contemporary communication.

영어권에서는 이모지(그래픽을 활용한 그림 형태)와 이모티콘(기호나 문자로 만든 형태)을 구분하지만, 한국에서는 양쪽 모두 이모티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In Korea, “emoticon” is a blanket term that includes both emojis (digital images used to express ideas or emotions) and emoticons (images formed by text characters and symbols).





2.2.4

캐릭터 이모티콘 Character Emojis

그림 이모티콘은 점점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라인 등에서 개발한 캐릭터 이모티콘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작가들의 개성 있는 이모티콘이 유료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모티콘에 소리나 움직임을 넣어 더 생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mojis are continually evolving into more complex forms. In Korea, emojis of the characters created by Kakao and Line are extremely popular. Users can purchase special emojis created by designers, and some emojis now include sounds or movements to make them more dynamic.

이모티콘 제작과정

1

이모티콘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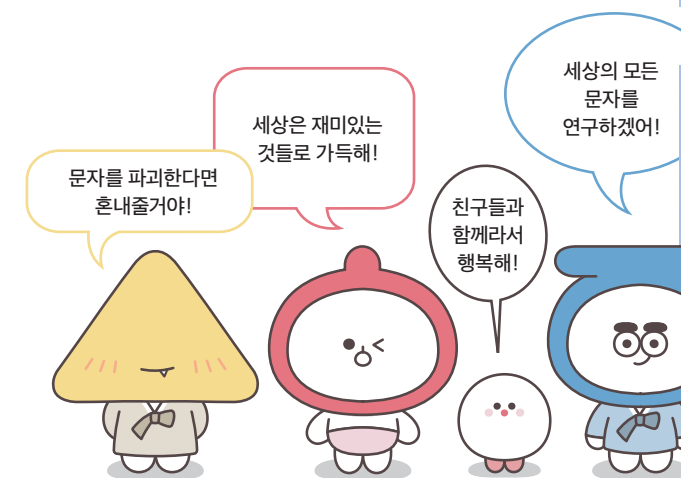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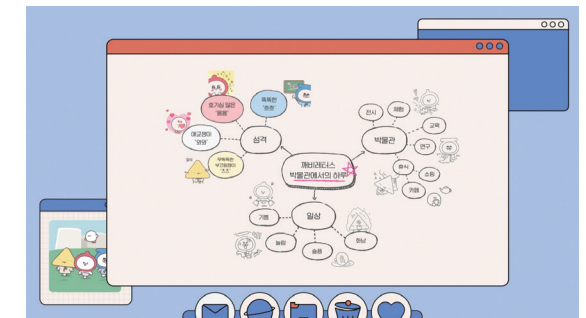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캐릭터 '깨비레터스'가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세요.

Video About Making Emojis

1

How are emojis created?

This video shows how the "Kkaebi Letter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could be made into an emoji.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캐릭터 '깨비레터스(Kkaebi Letters)'



이모티콘 제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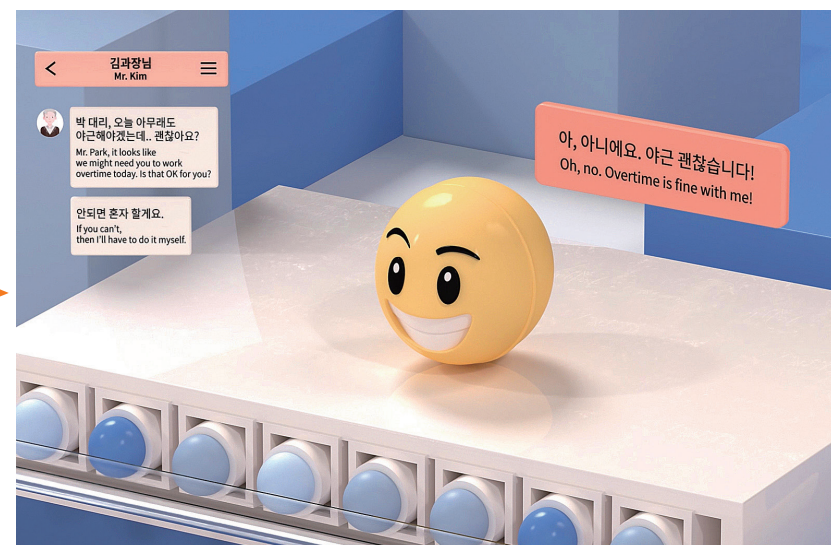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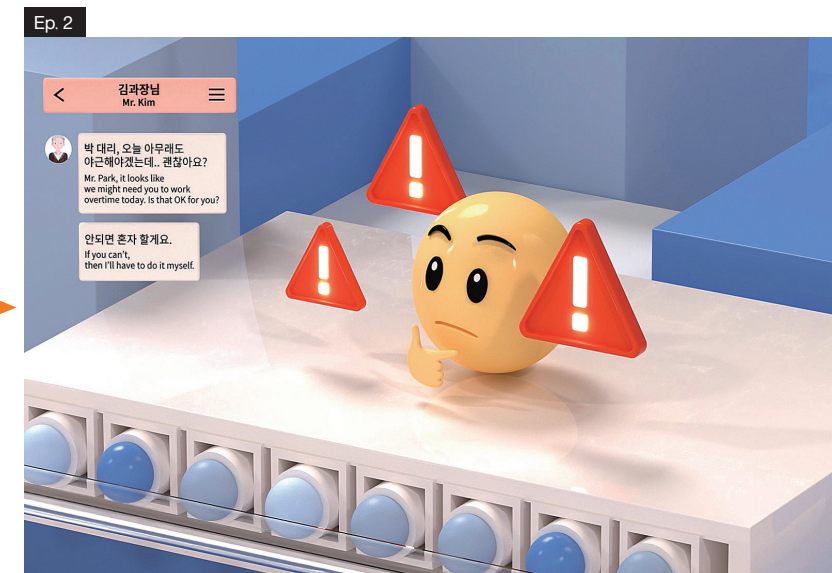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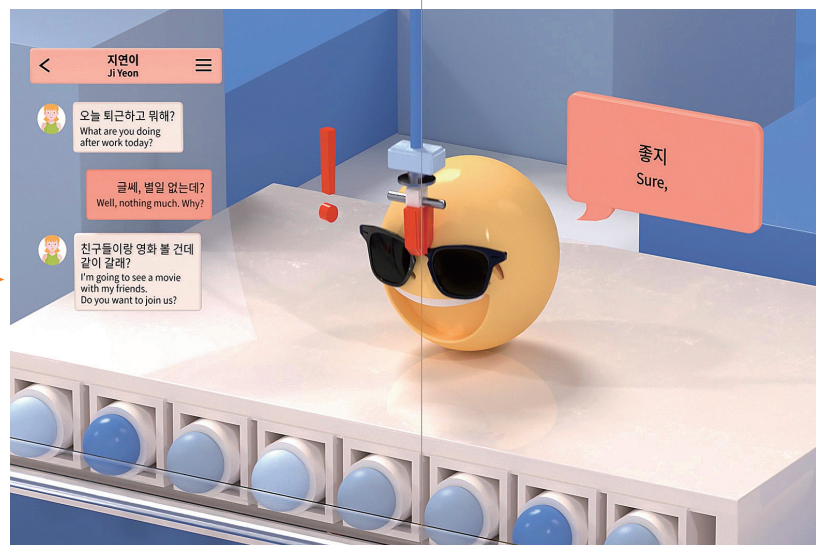


오늘 느끼는 감정은 어떤가요?
어떤 감정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Emoji Workshop



How are you feeling today?
What emotions do you want to express?



인터넷 유행 이미지

¶

인터넷에서 우리는 글 대신 이미지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황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만화의 한 장면, 재미있는 동물 사진 등 인기 있는 이미지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인터넷 은어로 '짤방' 또는 '짤'로 불리기도 하는데, 게시글이 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미있는 사진 등을 첨부한 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nternet trending imag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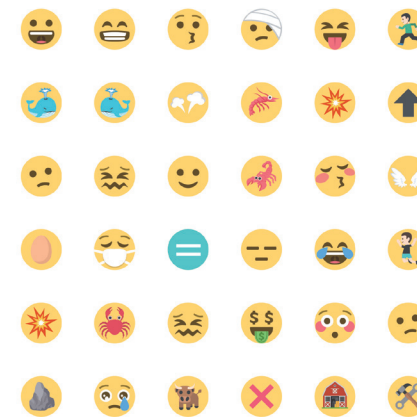
On the internet, many people use images, rather than text, to express emotions or react to various situations. Certain images, such as cartoons, cute animals, or scenes from TV and movies, are sometimes shared by many people, spreading quickly across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Such images are known as "memes," or in Korean, "jjal."

이모티콘 문답

Emoticon Quiz

이모티콘 속에 숨겨진 속담을 찾아보세요.

Use the emojis to express these Korean proverbs.



- ① 계란으로 바위치기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③ 가재는 게 편
- ④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① Like hitting a rock with eggs
(similar to "banging your head against a brick wall.")
- ② Repairing the barn after losing an ox
(similar to "shutting the barn door after the horse has bolted.")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이모티콘 속에 숨겨진 영화 제목을 찾아보세요.

Use the emojis to express these movie titles.



- ① 박물관이 살아있다
- ② 반지의 제왕
- ③ 설국열차
- ④ 웰컴투동막골
- ⑤ 집으로

- ① *Night at the Museum*
- ② *Lord of the Rings*
- ③ *Snowpiercer*
- ④ *Welcome to Dongmakgol*
- ⑤ *Close to Home*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카드 만들기

Stamp Fun!



그래도 문자는 필요할까 But Are Writing Systems Still Necessary?



그림은 문자 없이 바로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자가 계속 필요할까요?
픽토그램과 이모티콘이 널리 쓰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문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Images can now provide a convenient and efficient way of communicating without text.
So do we still need writing systems?
With the rising popularity of pictograms, emoticons, and images, will written text become obsolete?



2.3.1

픽토그램 알아맞히기

Interpreting Pictograms

우리는 문자 없이도 픽토그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의미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픽토그램이라면 어떨까요?
문자가 없다면 그림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Pictograms can usually be interpreted without text,
since the images are very familiar to us.
But what happens when you encounter
a pictogram that you have never seen before?
Unfamiliar pictograms can sometimes be difficult
to interpret without a written explanation.



 안전장치를 점검하십시오 Check guard	 대피소 Evacuation assembly point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마시오 Do not place too close to the ear
 구명보트 Lifeboat	 육교를 이용하십시오 Use footbridge	 귀마개(청각 보호기)를 사용하십시오 Wear ear protection

* KS S ISO 7010:2014 그래픽 심볼 - 안전색과 안전 표지 - 등록된 안전 표지 (Safety 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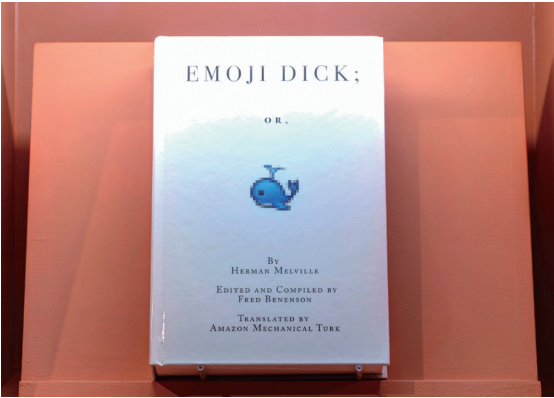
2.3.2
그림으로 번역된 《모비 딕》
Moby Dick Translated into Emojis

소설을 그림으로 번역하려는 흥미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림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가능했을까요?

There have been some interesting attempts to
translate novels into images. But is it really
possible to convey the full meaning of literature
using only images?



- ① **모비 딕**
허먼 멜빌 지음 | 이스턴 프레스
Moby Dick; or, The Whale
Herman Melville, published by Easton Press
- ② **모비 딕 (한국어판)**
허먼 멜빌 지음, 김석희 옮김 | 작가정신 (2011)
Moby Dick (Korean translation)
Herman Melville, translated by Kim Sukhi,
published by Jakkajungsin (2011)
- ③ **모비 딕 (한국어판)**
허먼 멜빌 지음, 이종인 옮김 | 현대지성 (2022)
Moby Dick (Korean translation)
Herman Melville, translated by Lee Jongin,
published by Hyundae Jisung, Inc. (2022)
- ④ **이모지 딕**
허먼 멜빌 원작, 프레드 베넨슨 편집,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옮김 (2010)
Emoji Dick; or, The Whale
Herman Melville, edited and compiled by Fred Benenson,
translation by Amazon Mechanical Turk (2010)



나를 이슈메일이라 불러다오.
Call me Ishmael.



이 방법이 내게는 권총과 총알을 대신한다.
This is my substitute for pistol and ball.

2.3.3
이모티콘 《심청전》
Emoji Version of *The Tale of Sim Cheong*

《심청전》을 이모티콘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Every Korean is familiar with *The Tale of
Sim Cheong*. Is it possible to translate this
famous traditional story into emojis?



2.3.4

알쏭달쏭 이모티콘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Emojis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이모티콘이지만, 설명이 없다면 조금 알쏭달쏭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알쏭달쏭 이모티콘은 무엇인가요?

While emojis allow us to creatively express our emotions,
they can sometimes be a little confusing to another person.
Can you think of some emojis that c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even when viewed together by multiple people?

Q.
다음 이모티콘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How would you interpret the following emojis?

나 옷 새로 샀는데 나한테 안 어울리지 않아?
I went shopping today, but I'm not sure about my new outfit. What do you think?

오, 잘 어울린다! 사진도 잘 나왔는데?
It really suits you!
You look great in the photo.



(제공: 카카오톡)

1 (우쭐대며) 역시 잘 어울릴 줄 알았어.
Obviously it suits me!
I knew you would say that.

2 (소심하게) 안 어울리지만 좋게 말해주는군.
Obviously it doesn't suit me!
You're just trying to be polite.

무슨 의미야?
What does this mean?

(게임 중)
(While playing a computer game)

아 뭐야, 졌네...
나 공격당하고 있었는데 왜 안 도와줬어?
Oh man, they got me!
I was under attack, why didn't you help me?

미안 ㅠㅠ
잘못 봐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Sorry, I thought it was someone else.



(제공: 카카오톡)

1 (격려의 하이파이브) 잘해보자!
Here's an emoji of encouragement to lighten the mood.

2 (한 대 때리면서) 정신 차려!
Here's an emoji of a slap to warn you to do better next time.

무슨 의미야?
What does this mean?

세 줄 요약

Three-Line Summary

- 현대에도 그림은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픽토그램, 이모티콘은 그림으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 그러나 그림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어려워, 여전히 문자가 필요합니다.
- Even today, many people use images to communicate.
- Common types of images used to communicate are pictograms and emoticons.
- Since it is difficult to convey meaning with images alone, text is still necessary.



경험에 더 가까이



긴 글은 읽기 싫어지나요?

이미지나 영상이 더 편하게 느껴지나요?



뇌는 본능적으로 문자보다 이미지와 영상을 더 좋아합니다.

문자 기호를 해독하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미지와 영상은 편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이미지와 영상을 다루기 쉬워지자,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 자료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경험과 감각에 가까운 매체가 문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Closer to

Experience



Do you want to stop reading when text gets too long?

Do you feel more comfortable looking at images or videos?



The human brain innately prefers images and voice over text. This is because deciphering written signs requires conscious effort, while seeing and hearing is much more natural, like ordinary sensory perception, and therefore less strenuous.



Advancements in technology have now made it even easier for us to receive and understand images and sounds. Thus, many people today prefer audio-visual materials, which are easily processed in our brain like everyday experiences and perceptions. In turn, such material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to supplement or even replace written text.





박물관 홍보담당자의 하루 A Day with Ms. Young, Museum Publicist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홍보담당자를 소개합니다.

‘박물관 막내’라는 의미의 별명 ‘박막내’로 활동하며 문자, 이미지, 영상을 가리지 않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박막내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Ms. Young is a new publicist at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who is dedicated to innovatively promoting the museum with the spirit of youth.
Let's spend some time with Ms. Young as she passionately communicates through
text, image, and video.

3.1.1

누리소통망과 블로그 Social Media and B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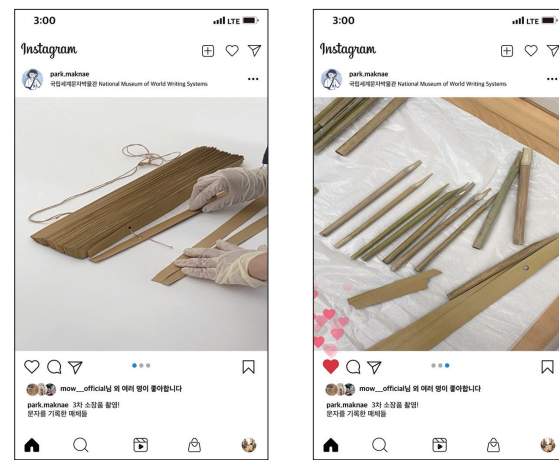
송도 센트럴파크를 지나 씩씩하게 출근하는 박막내 씨.
오늘따라 박물관이 파란 하늘과 어울려
유난히 아름답네요. 찰칵, 사진을 찍어 박물관
누리소통망(SNS)에 올려 봅니다. 이웃들도 멋지다고
칭찬해 주니 기분이 더 좋습니다.



박막내 씨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 사진, 동영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출장에서 본 전시에 대해 사진과 글로 정리해 둡니다.
블로그에 차곡차곡 모아 두면 유용한 자료가 되겠지요?



Going to work in the morning, Ms. Young passes
by Songdo Central Park. She notices that the
white walls of the museum look especially beautiful
today against the bright blue sky, so she takes
a few photos and posts them on Instagram.
Ms. Young's post gets a lot of likes and compliments
from her friends and followers, which makes her
very happy.



Ms. Young also writes a blog, where she can
combine text, photos, and videos in a variety of
ways. She often reviews the exhibitions that she
sees on her business trips, using both text and
photos. Wouldn't it be great to have all of these
reviews collected and organized in a single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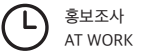


긴 글 주의 - 문자의 미래는?
TOO LONG, DIDN'T READ - What Is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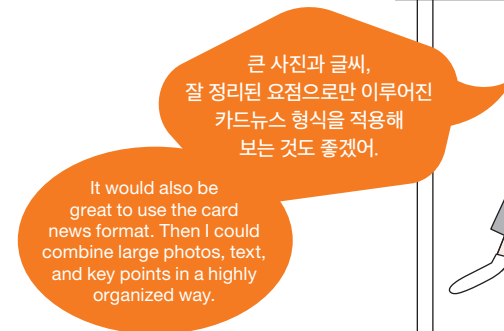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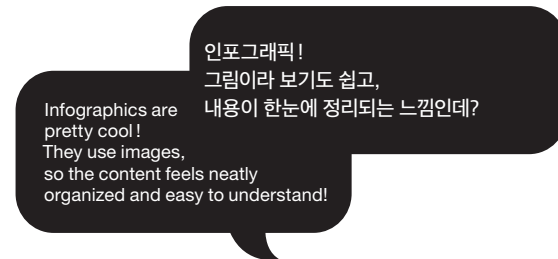
3.1.2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 Infographics and "Card News"



박물관 홍보자료를 계획 중인 박막내 씨.
박물관의 매력을 긴 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시각자료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를 찾아 보니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가
눈에 띕니다.

Today, Ms. Young is thinking of new ways to
publicize the museum. While she could explain
the appeal of the museum in a long article,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use visual materials
that can be seen and understood at a glance.
While searching online for examples of PR
materials, she comes across two interesting
possibilities: infographics and "card news."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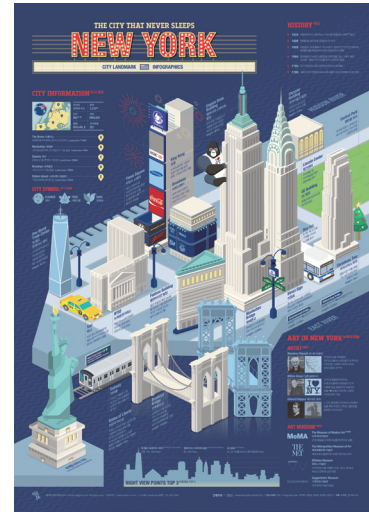


정보를 얻기 위해 긴 글을 읽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포그래픽(정보그림)은 정보를 그림과 도표 등으로 나타내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제시를 넘어 정보를 해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Infographics



Reading long texts for information can take a lot of effort. But infographics convey information through figures and diagrams, which are often easier to understand. They can also provide more in-depth interpretation and analysis, going beyond the simple presentation of information.



카드뉴스



카드뉴스는 정보를 여러 페이지로 나누어 배치하고 그림과 도표, 글씨체를 활용하여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합니다. 상품 광고와 정책 홍보 등에 널리 쓰입니다.

Card News



With "card news," you can strategically arrange information on multiple pages, using images, diagrams, and text in different fonts. This format makes the content much easier to understand, which is why "card news" is now being widely used to advertise products and policies.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서해랑길 개통



* 카드뉴스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Examples of "card news" crea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3.1.3 영상 Video

퇴근 후 즐거운 저녁 시간.
박막내 씨는 요리 영상을 보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요리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영상으로 보니 더 쉽게 느껴집니다.

Back home after work, Ms. Young watches
a cooking video to help her prepare a delicious
dinner. She used to read cookbooks,
but she sometimes got a little confused about
certain parts of the process. But the videos take
her through each recipe step by step, which
makes everything so easy.



요즘은 애들이 영상 보는 데
빠져서 책을 잘 안 읽네.
these days, she doesn't read
books that much. She likes to
watch videos instead.

사실, 그게...
Well...



언니~ 오랜만이다!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up to, sis?

나 운동 중이지!
요즘 집에서 볼 수 있는 괜찮은
운동 영상이 정말 많더라!
I'm doing my workout.
There are so many good workout
videos now, so I exercise at home
watching them.

그래? 조카는 뭐 해?
내가 사준 책은 잘 읽어?
So how's my little sweetie doing?
Did she like the children's
book that I gave her?

정말?
아쉽네...
Really? Oh well,
kids these days...

영상이 보편화되고 글을 덜 읽게 되면서,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삶의 기본적인 기술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문자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습득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해졌습니다.

With more and more people showing a preference
for video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decline of books and literacy. Reading and
understanding text is an important life skill. But
contemporary life requires us to find, interpret,
and communicate information from various
media, beyond just text. Therefore, the ability to
use different types of media in a balanced way
has become more important.

① 퇴근 후 일상
AFTER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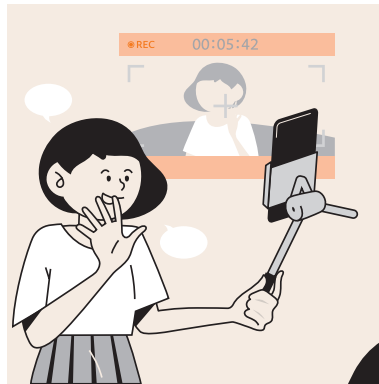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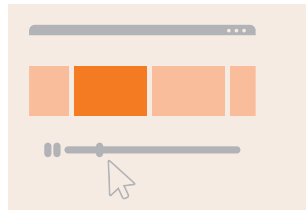


영상 제작실

Self Video Production

과거에 영상 제작은 전문가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장비만 있다면 누구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자신만의 방송 채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영상 제작실을 직접 만들거나 빌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In the past, only professionals could produce high-quality videos, but that's no longer the case. With today's technology and affordable equipment, anyone can produce videos, or even create their own channel. Also, many video production studios are available to rent, while some people have made their own studios at home.



나도 홍보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Maybe I should make
my own promotional video?



그래도 문자는 필요할까
But Are Writing Systems
Still Necessary?

창작의 기초

Foundation of the Creative Process

영상, 만화, 인포그래픽 등 어떤 매체로 창작을 하더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여전히 글쓰기입니다.

Even people who work in visual media, such as film, video, animation, or infographics, must begin by creating a plan for their content. And a fundamental part of the planning process is writing.

이미지와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문자는 계속 필요한 걸까?

No matter how great
my images and videos are,
I think I still need text.

영상과 시각자료가 놀랍게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자가 계속 필요할까요?
여전히 문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 문자로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의 체계화
Systematization of Thought

‘자유’와 같은 추상적 개념은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와 영상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은 잘 담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격을 추상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문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류는 문자의 힘으로 사상과 혁신을 발전시켜 지금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How can an abstract concept like "freedom" be expressed as an image or video? Image and videos are excellent for portraying concrete forms and ideas, but they aren't a well-suited for abstract concepts.

Abstract or systematic thought is a unique ability of the human brain, and the tool that made it possible is written text. Our entire civilization has developed through ideas and education made possible by written text.

With the tremendous advancement of video technology and other visual materials, do we still need to use written text?
What are the greatest benefits of written text?
Which situations still require us to use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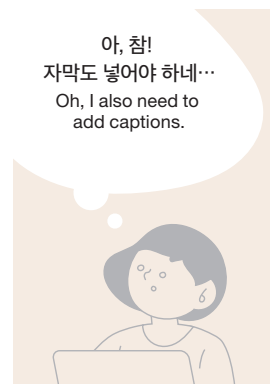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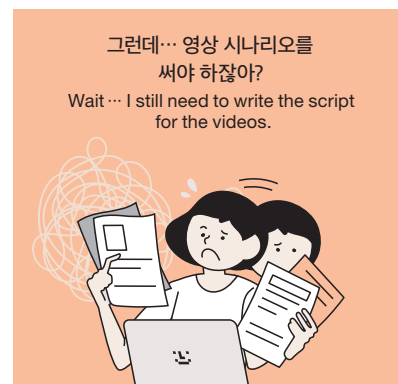
3.2.1

창작의 기초

Foundation of the Creative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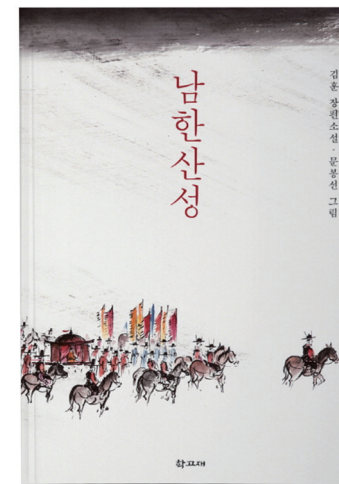
영상, 만화, 인포그래픽 등 어떤 매체로 창작을 하더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여전히 글쓰기입니다. 문자는 특별한 장비나 자본이 없어도 쉽게 쓸 수 있고 자유롭게 구상하며 상상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작비를 들이고 엄청난 흥행수입을 올리는 영화, 드라마 등도 글로 쓴 스토리와 기획안을 기초로 하여 시작됩니다.

Even people who work in visual media, such as film, video, animation, or infographics, must begin by creating a plan for their content. And a fundamental part of the planning process is writing. Writing does not require any investment money or special equipment; all you need is your imagination. Every movie and TV show, with their huge budgets and box office profits, started out as a simple written idea or synopsis.



영화와 드라마를 탄생시킨 소설들

Novels that gave birth to movies and TV shows



자료협조: 도서출판 학고재(Hakgojae Books)

소설 《남한산성》

2007년 출간된 김훈의 소설로 병자호란 중 남한산성에 피신한 조정과 백성이 겪는 고뇌와 고통을 특유의 날카로운 문체로 그려냈습니다.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하였고, 베스트셀러로서도 독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기반으로 2017년에는 영화 <남한산성>이 제작되어 청룡영화제 각본상, 대종상 영화제 촬영상, 조명상, 음악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Namhansanseong Fortress

Published in 2007, Kim Hoon's novel depicts the suffering of the Joseon royal court through the lives of the people who took refuge in Namhansanseong Fortress during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Written in the author's acute style, the book became a bestseller and won many awards, including Best Fiction at the Daesan Literary Awards. Based on the novel, the movie *The Fortress* was produced in 2017. It also won many awards, including Best Screenplay at the Blue Dragon Film Awards, and multiple awards at the Grand Bell Awards.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연재된 산경의 웹소설입니다. 재벌가에 의해 살해당한 주인공이 그 재벌가의 막내아들로 환생하여 성공하고 복수하는 이야기로 연재 기간 내내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웹소설의 내용을 기반으로 웹툰과 드라마도 제작되었습니다. 드라마가 크게 흥행하고 많은 화제가 되면서 원작인 웹소설에 다시 관심이 쏠리기도 하였습니다.

Reborn Rich

Reborn Rich is a "web novel" by Sangyeong, which enjoyed great popularity when it was serialized from 2017 to 2018. In the story, the protagonist is killed by a wealthy conglomerate family, but is then reborn as the youngest son of that family, where he rises to success and takes his revenge. The web novel was later adapted as both a webtoon and a TV drama, which became a global hit in 2022, spawning new interest in the original novel.



자료협조: STUDIO JHS
©산경(山景), 2022

3.2.2

생각의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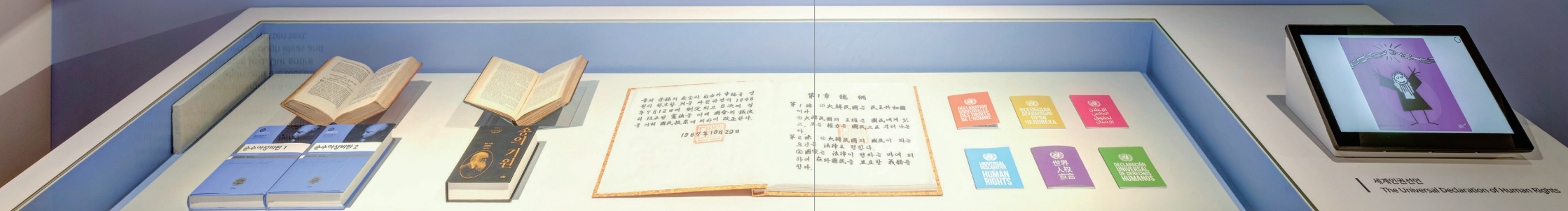
Systematization of Thought

'자유'와 같은 추상적 개념은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와 영상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 형상은 잘 담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을 추상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문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류는 문자의 힘으로 사상과 학문을 발전시켜 지금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How can an abstract concept like "freedom" be expressed as an image or video? Images and videos are excellent for portraying concrete forms and ideas, but they aren't as well-suited for abstract concep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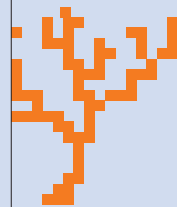
Abstract or systematic thought is a unique ability of the human brain, and the tool that made it possible is written text. Our entire civilization has developed through ideas and education made possible by written text.



“오히려 순수 이성을 가지고서
그 대상들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그 물음들의 대상에 관해서,

그 대상과 관련해 무엇인가를 판단할
이성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판정을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순수이성비판
Critique of Pure Reason



“자연 선택이 가지각색의 서식 생물을
개선하고 변화시킴으로써...”

“토착 생물들이 침입자들에게
더 잘 저항할 수 있게끔 유리하게
변화되어 왔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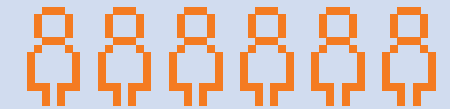
종의 기원
On the Origin of Species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동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순수이성비판

¶

임마누엘 칸트(1724-1804)의 책으로 1781년(초판) 발간되었습니다. 《순수이성비판》은 인간의 지적 능력인 이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 분석하며, 이성이 판단할 수 있는 것과 판단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료하게 밝히고자 한 책으로서 세계 지성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한 학문의 연구는 생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문자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순수이성비판

임마누엘 칸트 지음 | 프랑크푸르트 · 라이프치히 (1791)

순수이성비판 (한국어판)

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 아카넷 (2006)

Critique of Pure Reason

¶

Published in 1781 by German philosopher Immanuel Kant (1724-1804), *Critique of Pure Reason* analyzes the abilities and limits of human cognition, or "reason," and had a profound impact on our understanding of intelligence. As this book demonstrates, all of the complex scholastic texts that have greatly contributed to human development were made possible by writing systems that enable the logical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thought.

Critik der reinen Vernunft (Critique of Pure Reason)

Immanuel Kant, published by Frankfurt und Leipzig (1791)

Critique of Pure Reason (Korean translation)

Immanuel Kant, translated by Paek Chong-Hyon, published by Acanet (2006)

종의 기원

¶

찰스 다윈(1809-1882)의 책으로 1859년(초판) 발간되었습니다. 《종의 기원》은 그동안 신비함, 섭리 등으로 포장되었던 생물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책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윈은 동식물을 직접 키우며 연구한 내용을 글로 정리하여 《종의 기원》이라는 학문적 결실을 남겼습니다. 깊이 사고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문자의 힘이 없다면 어려웠을 일입니다.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지음 | 존 머리 (1899)

종의 기원 (한국어판)

찰스 다윈 지음, 장대익 옮김 | 사이언스북스 (2019)

On the Origin of Species

¶

Published in 1859, this famous book by English biologist Charles Darwin (1809-1882) transformed our understanding of our place in the natural world by elucidating how all living creatures change and develop over time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 book is based on decades of research that Darwin personally conducted on various plants and animals. The power of writing systems is what allows us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ideas that arise from research and contemplation.

On the Origin of Species

Charles Darwin, published by John Murray (1899)

On the Origin of Species (Korean translation)

Charles Darwin, translated by Jang Dayk, published by ScienceBooks (2019)





대한민국헌법

¶

헌법은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말보다 자유·민주·주권 등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나 영상처럼 구체성이 강한 매체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문자로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의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공포된 후 총 9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헌법(1987) 영인본
대통령기록관 소장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Constitution is the highest law in Korea, prescribing the basic rights and duties of every citizen and the composition of state institutions. Since being promulgated at the Constitutional Assembly in 1948, it has been amended a total of nine times. In the Constitution, words express abstract concepts such as freedom, democracy, and sovereignty, rather than representing specific objects or actions.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convey such ideas through a purely visual medium, such as images or video.

Copy of the current Constitution (1987) from the Presidential Archives

세계인권선언

¶

세계인권선언은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에 대응하여 1948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되었으며 세계의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도 헌법과 마찬가지로 자유·권리·존엄 등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있어 문자로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문은 최근 그림책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그림책은 문자와 그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국제연합(U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In 1948,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has now been translated into numerous languages around the world. Like the Constitutio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als with abstract concepts, which are best expressed in written text. Interestingly, howev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recently made into a picture book. The picture book is a fascinating resource allowing us to feel the difference between text and images.

United Nations



니다.

es a
cious
she
ertain parts
rough
everything



영상 협조: 유튜브 채널 '이 남자의 cook'
(제육볶음), '하루한끼'(김치볶음밥)
"fried pork" @cook5162, and
"fried rice" @onemealaday767

세 줄 요약

Three-Line Summary

- 이미지와 영상은 문자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이에 따라 이미지와 영상의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지와 영상도 문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Images and videos are easier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an text.
- As a result, the use of images and videos is greatly increasing.
- However, images and videos cannot completely replace text.



다시 들어가며

¶
¶
¶

생활 속 문자, 비문자 이야기를 돌아보며 우리의 소통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문자가 점점 사라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Epilogue

¶
¶
¶

Looking at all the images, symbols, and written language that fill our daily lives,
do you ever think about the ways in which we communic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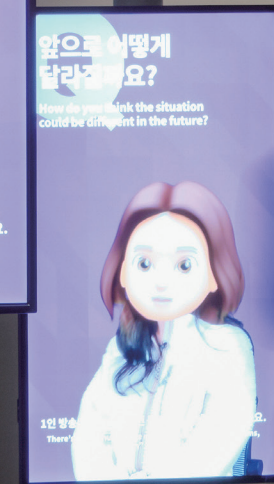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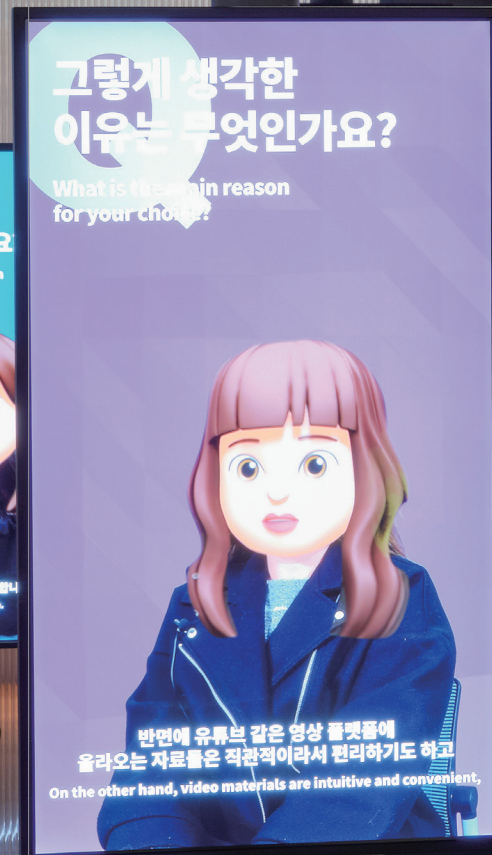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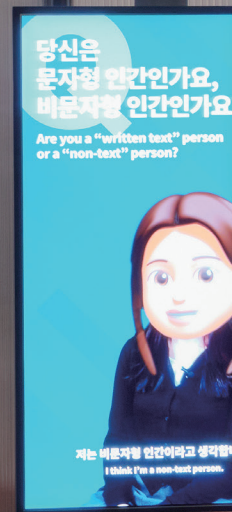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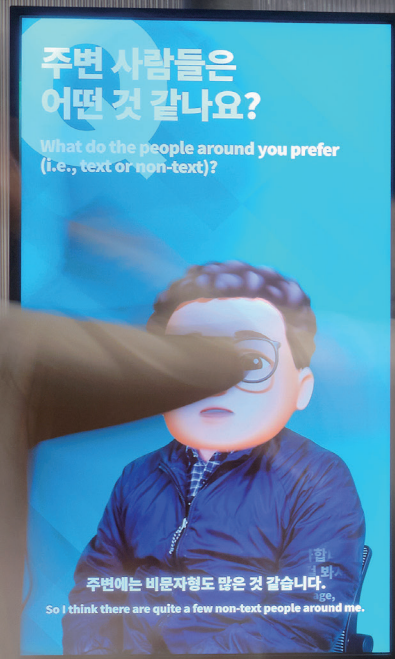
¶

In our rapidly changing world, some think that text will eventually decline,
while others say it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

Which side do you tend to agree with?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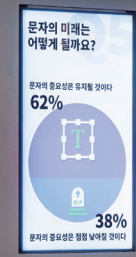
What types of new writing systems will we create in the futur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A	B	C	D	E	F	G	H	I	J	K	L	M
문자는 발전할 것이다	are	문자를 생각한다	is	and	지금과 우리, 서로가 것이다							
비문자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use	나는 생각해 것이다	우리는 같이									
문자와 비문자는 모두	Non-textual content	develop	in the future	don't know	아름다							
difficult	suddenly	사용할 것이다	여전히 비문자를 좋아한다	아무것도 모른다								
We	will	think	disappear within 50 years									
be	different											

시대가 변하면서 소통의 수단도 변화합니다.
영상을 보면 되니까 문자는 필요 없다든가
문자만 우수하다고 생각하여 이미지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발전하는 소통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여러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면 더 멋진 것을 만들 수 있듯
다양한 매체를 계속 발전시키고 적절히 활용할 때
우리가 만드는 소통의 미래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As times change, so do our means of communication.
But if we were to abandon written text for videos,
or focus solely on writing without images, then it would
be difficult to expect our communication to continue
to develop in the future.

Just as better tools produce better results,
the future of communication will be greatly enriched
if we continue to develop and use diverse forms of
communication in the most suitable way.

문자의 미래

이찬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도입
2. 문자의 기원과 진화
3. 문자의 추상화 과정
4. 문자 언어의 장점과 문성 언어의 등장
5. 언어 기능의 확장과 문자 언어의 변화
6. 문화의 변화와 문자 변화
7. 문자의 미래
8. 결론



1 — 도입

이 글의 목적은 미래에 문자가 양적,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있다. 오늘날 언어 사용에서 음성과 문자는 두 개의 축을 이룬다.

문자는 음성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에 비해 규범성이 강해서, 어느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며, 기록해야 하는 노동력이 더 필요하고, 기록에 필요한 도구까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효용성 못지않은 불편함이 있다.¹

인류의 언어 활동은 오랜 기간 동안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문자의 발명과 인쇄술의 발달 이후 문자 언어는 문명 구축의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성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초기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이른바 '문자 전성시대'의 동력이 되었으며, 최근 통신 수단과 장비의 발달은 음성과 문자의 장벽조차 허물어 가고 있다. 통신 장비를 통한 문자 소통은 그 특성상 문자 언어의 변화를 수반하며, 그로 인해 문자 언어의 규범성도 점차 약화되어 언어 파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소통의 명시성과 신속성에 대한 요구는 다시 그림문자의 재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향후에 문자 언어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것은 인류의 언어 활동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문자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문자의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자가 왜 생겨났는지 안다면,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문자 언어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자 언어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다. 음성 언어에 비해 문자 언어가 지닌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 보면 이 두 유형의 언어 수단이 어떤 역할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변화해 갈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자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문자의 발전 과정이 인간의 인지 능력 중 하나인 추상화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문자는 발생 초기에 상형(象形)으로 시작하여 점차 추상화되면서 본래의 모습이나 소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음소문자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한글은 그 과정에서 소리의 속성을 형상화한 유일한 음소 문자로 발명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에 문자 언어가 그림 언어로 대체되어 가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소리의 속성을 문자로 형상화한 한글은 문자 언어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자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자 언어도 결국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언어의 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서 문자의 역할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자 언어는 문화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문자는 기술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변해왔는데, 15세기에 인쇄술의 등장은 제1차 문자 언어의 성장을 이끌었고, 20세기의 등장한 디지털 기술은 제2차 문자의 전성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문자 언어는 기존에 지닌 단점들을 극복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되었다.

1
문자와 문자 언어는 구별되어야 한다.
문자는 음운적 자질을 지닌 자형을
가리키고, 문자 언어는 문자를
활용하여 언어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해부학자들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30만 년
전에서 20만 년 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시기에 후두의
위치가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이다.
후두가 낮아짐으로써 인간은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15만 년 전쯤
지구상에 나타난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과 달리 혀가
동글고 목은 길고 후두가 낮았다.
그래서 혀와 입술 그리고 후두의
정교한 협동 작업을 통해 광범위한
발음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언어가 탄생한 것이다.

3
스티븐 로저 피셔는 완전한 문자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1) 문자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2) 문자는 내구성
있는 표면에 인공적인 도해 표시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사람의 말과
인습과 관련이 있는 표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스티븐 로저 피셔,
박수철 역, 『문자의 역사
(A History of Writing)』, 21세기
북스, 2010, pp. 13-14).

마지막으로 문자의 사용은 사람 간의 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소통 문화는 크게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문자 언어의 역할이 달라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문자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2 — 문자의 기원과 진화

호모 사피엔스가 비교적 체계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약 20만 년 전에서 15만 년 전쯤으로 알려져 있다.²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된 결과이며, 문자의 발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충족되면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산물이다.

5만여 년 전 구석기 중기에는 돌이나 뼈 등에 규칙적인 간격을 새긴 사례가 등장하고, 그 뒤에 뭔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계산막대기·조개구슬·새끼매듭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고대 페루나 중국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결승문자의 초기 형태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무언가에 대한 계산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 뒤이어 1만 4천 년 전 선사 인류 시대에 그림문자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형태도 메소포타미아·이집트·수메르·마야·아메리카 인디언·중국 등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직 상호 소통을 위한 문자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³ 문자적 요소를 충족하는 최초의 형태는 6천여 년 전 고대 중동의 수메르 지역에서 사용된 쐐기문자(설형문자)이다. 쐐기문자도 역시 초기에는 물품의 숫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자는 15세기에 이르기까지 문명 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형문자, 음절문자, 음소문자, 자질문자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한글로 대표되는 자질문자는 음성기호를 문자로 구현해 낸 가장 진전된 문자 체계로 꼽힌다.

문자의 탄생은 상업의 발달로 인한 기록의 필요성과 관련이 많다. 문자의 변화 과정을 보면 후대에 발명된 문자일수록 초기의 상형성에서 벗어나 점점 소리와 연동되는 기호 체계로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인간과 언어가 상호 작용하면서 인지 능력을 키워 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자의 추상화 과정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3 — 문자의 추상화 과정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뛰어난 두뇌를 가지게 된 결과의 하나로 '추상적 사고'를 들 수 있다. 인간이 영장류로부터 갈라져 나온 700만 년 전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 번에 걸친 뇌 용적률의 증가로 초기 인류가 가졌던 700cc의 뇌로부터 오늘날에는



4
특히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앞이마가 튀어나와 있는데,
앞이마 쪽에 위치한 전두엽의
발달이 추상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
문성 언어(文聲言語, text-speech
language)는 필자가 창안한
새로운 개념어로 인공지능과 통신이
결합하여 가능해진 전달 체계다.
구어를 문어로 동시에 표현해 주는
방식(STT : speech to text)과
문어를 구어로 읽어주는
방식(TTS : text to speech)이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 통신의 확대로 21세기에는
일반화될 것이다. 문성 언어는
구어와 문어의 벽을 무너뜨림으로써
구문어체(口文語體)어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1,800cc에 이르게 되었다. 대뇌피질의 집중적인 팽창은 뇌 활동을 촉진시켰고,⁴
그 결과 추론적 사고가 가능해져 각종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능력은
관념적 사고의 발달로 이어진다. 즉 5개 감각기관을 통해 확인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가상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것이다. 인간이 음성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돌연변이 유전자인 FOXP2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고도의 추상적인 언어체계를 구사하는 능력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음성 언어도 역시 초기에는 자연의 소리들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 인간 뇌의 발달로 소리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서 소리를 구성하여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자 유형이 진화한 것도 인간의 추상화 능력 획득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자연을 닮은 형상대로 그리고 표시하다가 점차 추상화되어 인간의
음성언어를 구현하는 자의적(恣意的) 형태로 진화되어 간 것이다. 정리하자면 문자는
상업활동이 확장되면서 상거래 기록의 필요성, 자연과 형상의 모방으로 탄생하였지만
이후 추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4 — 문자 언어의 장점과 문성 언어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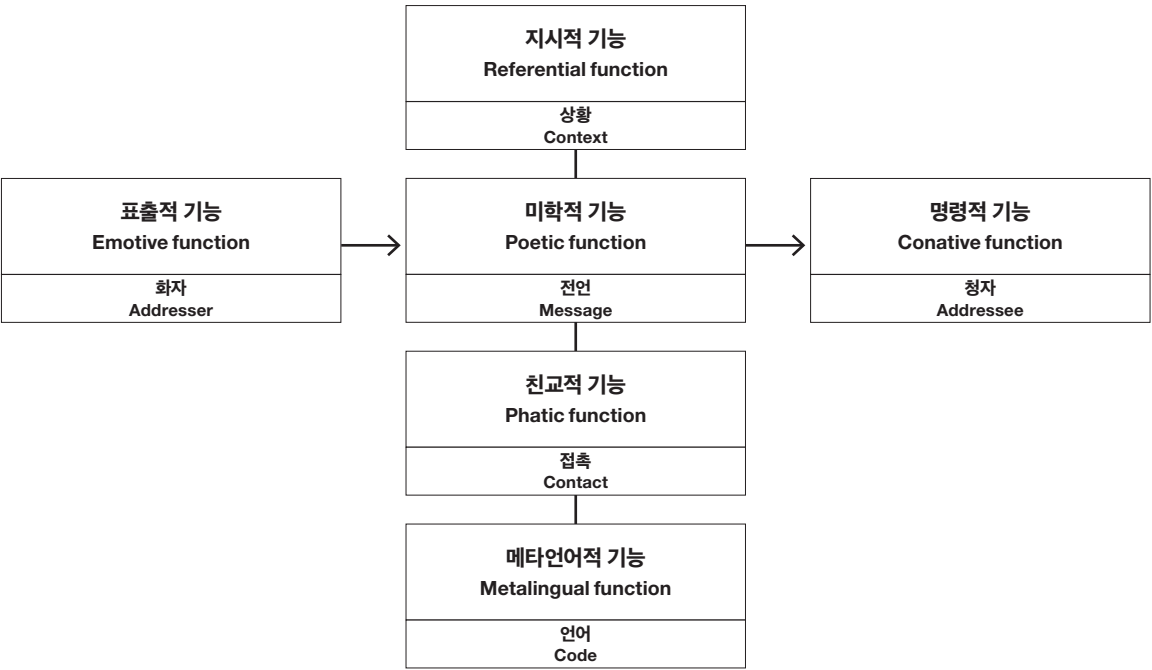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가 갖지 못하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확산성’이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비교는 사람이 직접 문자의 형상을 기록해야 하는
20세기 통신 발달 이전 시기와 20세기 이후 전 지구적으로 통신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상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통신의 발달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경계를
상당히 허물어 가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의 발달, 특히 영상 통신의 보편화는 음성과
문자가 동시에 표현되는 소위 문성 언어(文聲言語)⁵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표 1]

5 — 언어 기능의 확장과 문자 언어의 변화

언어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로만 야콥슨은 언어가 지닌 대표적 기능으로 6가지를
제안하였다.^[그림 1]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한 소통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의 기능을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으며, 음성적 관점 위주로 정리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언어의 영향력이 고대에 비해 문화와 사회 전반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문자의 영향력 확대까지 고려한다면 언어의
기능은 보다 광범위하게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표 1] 문자와 음성의 특성 비교

기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전달 수단	음성	문자
청자 사용 감각	청각	시각
시간성	동시성	항구성
공간성(대면성)	제한된 공간(대면)	공간 제약 없음(비대면)
전달 내용의 유형	간단한 정보적, 친교적	추상적, 논리적 복잡한 사고 전달 가능
전달 방법	직접 전달만 가능	간접 전달 가능
보조 소통 수단	신체	각종 그림, 도표 등
내용 수정	불가능	가능
규범성	자유로움	엄격함
맥락의존성	높음	낮음
감정 전달력	높음	낮음
표현에 접근하기 쉬운 정도	쉬움	어려움
사용도구	없음	있음
정보 재확인	불가능	가능



[그림 1] 언어의 기능, 로만 야콥슨(1958)



[그림 1]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의 언어 기능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언어적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 | |
|----------------------------|---------------------|
| ① 동일 언어 사용자들의 동질성 부여 기능 | ⑧ 세상 지식 형성 기능 |
| ② 창조적 기능(신어, 거짓말 등) | ⑨ 맥락 상징 기능(음성) |
| ③ 수행적 기능(약속, 제안, 질문, 경고 등) | ⑩ 소통 시 공간 초월 기능(문자) |
| ④ 실제 세계 반영 기능 | ⑪ 정보 재확인 기능(문자) |
| ⑤ 가상 세계 형성 기능 | ⑫ 문자 조형 예술 기능(문자) |
| ⑥ 사고 체계 구축 기능 | ⑬ 법적 근거 형성 기능(문자) |
| ⑦ 문화 전승(기록 보존), 전파 기능 | ⑭ 이야기(스토리) 구성 기능 |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될수록 언어는 그에 맞춰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언어의 기능도 더 다양하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

6 — 문화의 변화와 문자 변화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됨에 따라 기술의 발전은 문자의 변화를 이끌고 가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차에서 4차까지 산업혁명을 거쳐 오면서 기술의 발달은 더 이상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문화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문화는 사회 전반에서 일종의 틀(frame)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개별 인간과 사건들은 문화라는 큰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다시 형성된 문화적 틀의 영향을 받는다. 소통 문화의 관점에서만 논의하자면 세상은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라는 틀로 설명할 수 있다.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특징은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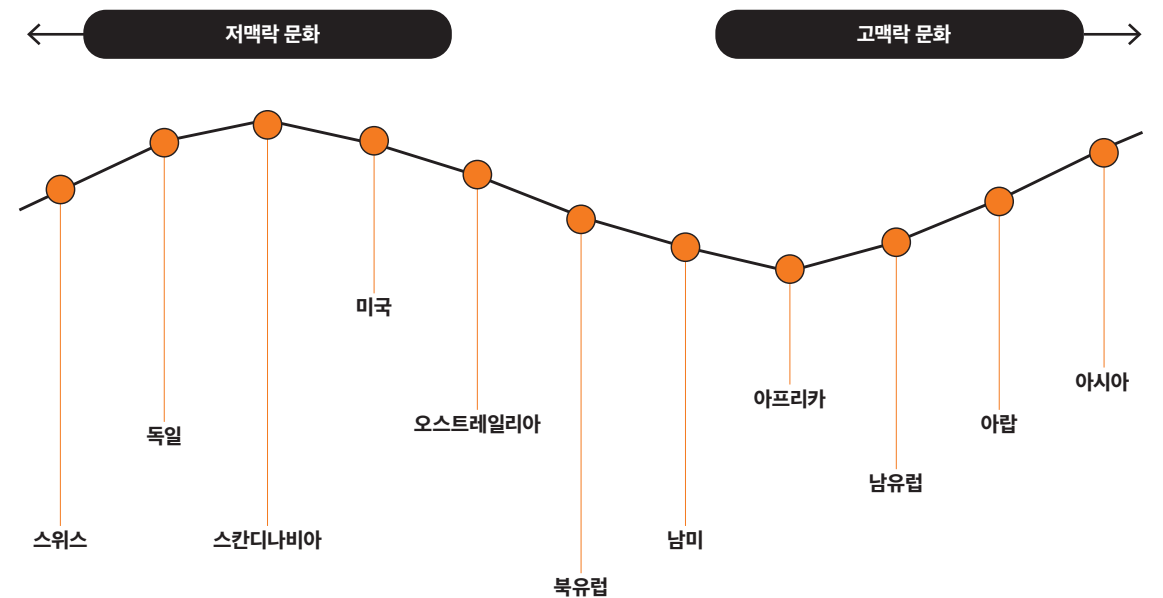
1959년 에드워드 홀이 세계를 저맥락 문화와 고맥락 문화로 구분할 때만 해도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해 보였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국가를 구분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기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 통신혁명은 저맥락 사회와 고맥락 사회라는 기존의 구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저맥락 사회보다는 특히 전통적인 고맥락 사회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회의 특징을 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적극 수용하는 계층은 급속하게 저맥락화되어 가는 반면, 이런 통신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계층에서는 여전히 고맥락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본다면 소통 문화의 큰 흐름은 저맥락 문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이나 중국 등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고맥락 문화권에 있던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맥락 문화로 이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반대로 저맥락 문화가 고맥락 문화로 이동하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저맥락 문화로 변해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체로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급격한 도시 집중화, 개인주의의

[표 2] 소통 관점의 문화 구분, 에드워드 홀(1959)

구분	특성
저맥락 문화 Low-context culture	- 직접적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의미 표현 - 개인주의 가치관·선적인 논리 강조 - 직접적이고 언어적 표현 많이 사용 - 아이디어 표현에 논리 존중 - 법칙이나 명시적 규약에 의한 일 처리 - 고도로 구성된 메시지
고맥락 문화 High-context culture	-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암시적 의미 표현 - 집단주의 중시·나선형, 원형 논리 강조 - 간접적이고 비언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 - 아이디어 표현에 감정을 존중 - 묵시적 이해나 직관에 의한 일 처리 - 모호한 메시지



[그림 2] 고맥락 저맥락 소통 국가 구분



확산, 심지어 반복되는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영향 등도 저맥락 사회로의 변화를 부채질하는 요인들이다. 세상의 문화가 급변하고 다양해질수록, 또 개인 간의 친밀도가 약해질수록 저맥락적 소통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저맥락 문화는 규약(規約)에 관련된 언어가 세분화 되어 있고, 친교적인 언어 기능이 고맥락 문화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그런데 통신 발달과 도시 팽창, 다문화 사회 확장 등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저맥락 문화(neo-low contextual culture)는 약간 다른 형태를 띤다. 대면 소통과 비대면 소통이 이원화되면서 새로운 소통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저맥락 소통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0년 전에 비해 소통의 총량은 늘어났다. 이 중 소통 방식으로 볼 때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여 개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 소통의 40%를 넘어선다. 특히 친밀도가 높지 않은 관계에서는 음성 통화보다는 문자 소통을 편하게 느끼며, 업무상 대화는 문서나 문자로 주고받는 것을 선호한다. 실제로 문자 소통의 총량이 계속 증가하고, 동시 즉각적 소통보다는 비동시 소통, 일방 소통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긴 문장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도 새로운 특징이다.

대면 소통에서는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소통의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개인 간 대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소규모 그룹을 제외하고는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상호 친밀도가 높지 않다면, 개인 간 대면 소통을 30분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문자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명히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임에도 불구하고, 문어적 격식성이 줄어들고 구어적 요소가 늘어났으며, 구어적 요소의 하나로서 문자에 감정적 표시를 가미하는 이모지(emoji)도 등장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직접 소통에서도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현상과 함께, TV와 같은 대중매체에서는 방송 중 음성을 보완하는 자막을 삽입했을 때 시청자들의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반응에 따라 자막 사용의 빈도가 늘어가고 있다.

또 하나의 경향은 그림문자의 재등장이다. 문자 발생 초기에 그림문자나 상형문자가 주로 자연의 형상을 본뜬 것이었다면 오늘날 사용되는 픽토그램(pictogram)은 주로 사람들의 사회 활동과 관련이 있다. 픽토그램 사용이 확산되는 이유는 픽토그램이 언어 간 장벽을 뛰어넘어 범용성을 띠 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저맥락 문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언어 표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연중들이 설명보다는 직관적인 이해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7 — 문자의 미래

문자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문자학이 언어학, 예술, 문헌학, 역사학, 심리학, 문화·사회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컴퓨터공학 등과 연관된 융합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문자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논할 때도 이런 다양한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문자⁶ 시대로의 전환

문자의 기원과 진화는 문자가 기록된 도구나 기록 수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이의 발명과 인쇄술의 발전이 제1차 문자의 전성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다면 통신 기기 등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 매체는 제2차 문자의 전성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문자를 기록하는 종이와 같은 도구의 한정성으로 인해 디지털 문자는 더욱 사용이 확장되어 나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가) 디지털 문자 사용의 확장

디지털 문자 언어의 장점은 손 문자나 인쇄 문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다는 데 있다. ‘쓰기-수정하기-편집하기-보존하기-주고받기-인쇄하기’ 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문자 사용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다. 음성 언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문자 언어의 장점이 디지털 문자 언어에서 극대화된 것이다. 음성은 사용하기는 매우 쉽지만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⁷ 그런데 디지털 문자는 음성에 버금갈 정도로 사용하기 쉬운 데다가 현대인의 대다수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 도구를 휴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자 언어를 사용할 때 겪는 기존의 번거로움을 쉽게 극복하게 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체의 개발은 디지털 문자의 확장을 촉진해 준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서체를 개발할 수도 있으며, 자동완성 기능처럼 과거에 입력한 내용을 보여주는 기술이 더해져 문자 입력을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음성과 문자를 상호 전환시켜 주는 입력 방식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상호 장점을 호환 가능하게 해 준다. 향후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들의 발달로 적어도 쓰기에서는 디지털 문자 사용이 더욱 확장되어 갈 것이다. 디지털 문자의 확장은 신 저맥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나) 그림문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때로 대상에 대한 설명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문자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라는 말보다는 [그림3]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직관적이며 효율적이다. 그런 점에서 그림문자는 그 사용이 더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문자가 발명된 이래 문자는 읽어서 이해하는 것, 그림은 보는 것이라는 구도가 유지되어 왔다.⁸

6
디지털 문자는 디지털을 활용하여 기록하는 문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7
화자는 쓰는 것보다 말이 쉽고, 청자는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이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

8
김남시, 「문자 형상성. 문자와 그림의 대립을 넘어서」, 『기초조형학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2, pp. 15-24.



[그림 3]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그림 4] 픽토그램의 예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자료제공: 픽토그램디자이너 함영훈)

그러나 그림이 단순화, 추상화되면서 점점 본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문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지니게 되었다. 그림문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픽토그램

픽토그램(pictogram)이란, 그림을 뜻하는 픽처(picture)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누가 보아도 직관적으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림으로 된 언어체계이다.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픽토그램의 예는 운동 경기 픽토그램이다.

픽토그램은 대상을 추상화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픽토그램은 상형문자와 같은 속성을 지니는데, 문자의 발전 과정이 상형성에서 추상화 과정을 거쳐 음소 문자로 진화했듯이 앞으로 그림문자는 단순히 ‘보는 수단’에서 그치지 않고 ‘읽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 이모지와 이모티콘

문자 언어의 한계 중 하나는 그 표현 자체로는 화자의 감정을 읽어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누군가 문자로 ‘빨리 와’라고 보내왔을 때,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애교스럽게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문어 대화에 감정을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 😊, ☺, ☺’처럼 그림으로 표현한 문자인 이모지(emoji, 감정회화문자)와 ‘(-^▽^~), σ(≥ε≤o)’처럼 다양한 기호를 이용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문자인 이모티콘(emoticon, 감정기호문자)이다. 현재는 문자를 입력하고 중간중간에 적당히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를 선택하는데, 향후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동시에 표시해 주는 문성 언어 표현 방식과 문장에 자동으로 감정을 표시해 주는 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용하는 그림문자의 단점은 볼 수만 있고, 읽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전달 방식에 제한이 있다. 문자 언어는 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그림문자는 읽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규칙 체계가 아직 없다. 앞으로 그림문자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 문자 언어를 보완하는 방식

- 인포그래픽스와 모션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 information과 graphics의 합성어)는 복잡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표현 방식을 일컫는다. 단순한 시각 정보라기보다는 정보를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설명을 덧붙인 가공된 시각 정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표, 교통 노선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대인들은 장문의 글을 쓰거나 읽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인 설명 방식인 인포그래픽스를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인포그래픽스를 제공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9
모션 그래픽스(motion graphics)는 디지털 이미지에 간단한 그래픽 영상을 더해 의미(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2D 방식과 3D 방식이 있다.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문자를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본다. 디지털 기록 장치의 휴대가 더 편리해진다면 인포그래픽스는 모션그래픽스⁹와 더불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

인쇄술의 발달로 문자가 본격적으로 권위를 갖게 된 반면, 문자에 그림을 그려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만화 형식의 정보 전달 방식은 권위가 낮아 주로 재미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축소 사용되어 왔다. 영어에서 만화책을 ‘comic book’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책을 편집할 때도 삽화(일러스트레이션)는 주로 아동도서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TV 등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점차 더 직접적이며 직관적인 영상이나 그림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보다 권위를 필요로 하는 책들도 만화 형식으로 출간되기도 하며, 심지어 성인들을 위한 전문서도 만화 형식으로 출간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애니메이션이나 삽화 등은 문자로 해야 할 긴 설명을 간단히 전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직관적인 상상력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문자로만 구성된 텍스트는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해 주는 반면 그것을 형상화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은 제한된 상상력을 제공해 주지만 형상화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이것은 향후 정보 전달에서 문자로 표현된 많은 부분을 만화, 삽화 형식으로 표현해 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2)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상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음성을 문자로 전환하고(STT, speech to text),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TTS, text to speech)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것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영상 방송 등에서는 이미 실시간으로 음성을 자막으로 전환해 주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이 조만간 개인 스마트폰에서도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경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청각이나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서 두 개의 감각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전달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 사용이 확장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 소통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반화된다면 문자에 음성을 입히고, 음성을 그대로 문자로 전환해 주는 문성 언어 방식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 문성 언어

이모지와 이모티콘에 이어 문장에 감정을 입히는 방식이 일반화될 것이다. 화자의 음성 언어를 문자로 전환할 때나 단순히 문자를 입력할 때도 디지털 기기가 화자의 감정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문자에 감정을 표시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의 이모지와 이모티콘 방식도 당분간 사용되겠지만 보다 다양한 방식이 등장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일차적으로는 감정을 나타내는 서체의 등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쁨, 화남, 두려움, 짜증' 등을 드러내 주는 서체를 지정하거나 또는 자동으로 인식하여 표시해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 표시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이 등장할 것이다. 음성과 문자가 같이 표현되는 문성 언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3] 문성 언어의 특성

기준	문성 언어
전달 수단	음성 + 문자
청자 사용 감각	청각 + 시각
시간성	동시성, 항구성 모두 가능
공간성	공간 제약 없음
대면성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
전달 내용의 유형	전달 내용의 한계 없음
전달 방법	직접·간접 전달 모두 가능
보조 소통 수단	신체 + 각종 보조 수단 사용 가능
내용 수정	가능
규범성	비교적 자유로움
맥락의존성	낮음
감정 전달력	높음
표현에 접근하기 쉬운 정도	쉬움
사용도구	많음
정보 재확인	가능

그러나 문성 언어가 널리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고유 특성은 유지될 것이다.

3) 문자 종류의 재편

문자는 음성 언어의 사용이 어느 정도 규범성을 갖게 되고, 인구가 팽창하여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쉼기문자가 생겨나고, 중국에서 한자가 생겨난 이후 유사한 문자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결국 페니키아 문자를 거쳐 그리스 알파벳 문자가 유럽의 패권문자가 되었고, 아시아에서도 한글을 비롯한 새로운 문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한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문자 시대 초기에는 문자가 권력의 수단이었다. 인쇄술의 발달로

10
영국의 옴니그로트
(Omniglot.com)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 세계의 언어와
문자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전세계에는
177개의 문자가 있고, 이중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의
종류는 66개이며, 나머지는 이미
사용자가 없거나 특수한 종교적
의식에서만 사용되는 것들이다.

11
아라비아 숫자 표기법은 인도의
브라흐미 문자에서 기원하였다.
이후 페르시아 등지에서 이 숫자
체계를 채택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문자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문자를 독점하는 권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들은 문자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6,000여 개의 언어가 있지만 문자의 종류는 180여 개에 불과하다.¹⁰ 그런데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해 문자 체계는 급격하게 영미식 로마자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심지어 5,000여 년 넘게 사용되어 온 한자마저도 컴퓨터에 입력할 때는 로마자를 기본으로 하는 병음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인터넷 통신이 더 가속화된다면 영미식 알파벳의 영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다행히 한글은 음소문자 중에서도 진전된 자질문자이자 음소적 음절문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문자 입력에 매우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식 알파벳으로 기록된 디지털 콘텐츠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국어 콘텐츠에서도 영미식 알파벳의 영향은 점차 커질 것이다.

문자의 통일은 이미 역사적으로 한 차례 이루어졌다. 흔히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진 인도 숫자 문자이다.¹¹ 이미 로마자나 한자에도 숫자를 나타내는 문자가 있었지만 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강력한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 아라비아 숫자와 양상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영미식 알파벳은 음성 언어를 바로 문자로 표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점유율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 문자의 사용이 확장되려면 일단 음소문자여야 하고, 해당 문자로 작성된 콘텐츠가 일정 비율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로마자 알파벳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글의 경우는 초·중·종성 음절 구성방식이어서 입력은 다소 어렵지만 가독성이 좋아 컴퓨터용 문자 체계로서 손색이 없다. 그렇지만 한글 사용자의 수가 한정적이고, 인터넷 안에서 한글 콘텐츠 점유율도 높지 않아 현재로서는 문자 사용의 확장성이 크지 않다. 가상 공간에서 한글 콘텐츠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문자의 미래를 예측해 보기 위해 문자가 어떠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인간 사고의 특성 중 하나인 ‘추상화’는 문자의 사용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문자 변화가 결국 문화 변화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현재 소통 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저맥락 문화가 문자 언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로만 야콥슨은 언어의 여섯 가지 기능을 제시했지만 인간 세계가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언어는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언어 기능의 확장은 언어 활동의 중요한 축인 문자 언어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문자의 미래를 예상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당분간 디지털 문자의 사용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 ② 픽토그램, 이모지, 이모티콘과 같은 그림문자의 사용이 확대될 것이며, 이와 유사한 다양한 그림문자의 유형들이 등장할 것이다.
- ③ 문화와 문명의 빠른 변화로 정보의 유통 시간이 짧아져 문자로만 이루어진 긴 글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포그래픽스, 모션그래픽스,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등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 ④ 인공지능의 발달로 언어 활동에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문성 언어(文聲言語)의 형태가 등장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의사 전달력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될 것이다.
- ⑤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70여 개의 문자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점차 사용 범위가 줄어들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영어 콘텐츠의 확장으로 인해 로마자 알파벳은 사용자가 적은 언어와 문자를 점차 대체해 갈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언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듯이 문자도 변한다. 어떤 문자들은 소멸되기도 하고, 어떤 문자들은 새로 생겨나기도 한다. 또한 문자로 언어활동을 해 가는 문자언어도 다양한 형태로 변해 왔고, 앞으로도 변해 갈 것이다. 문자 언어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은 인간 언어 활동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김남시, 「문자 형상성. 문자와 그림의 대립을 넘어서」, 『기초조형학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2, pp. 15-24.
- 배보은, 「문자론: 용어와 문자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신재호, 「문자의 역할에 대하여」, 『디자인사연구』, 제2권 제1호, 한국디자인사학회, 2021.
- 안병학, 「글자 개념의 인식론적 변화로 본 타이포그래피」, 『한국콘텐츠학』, 제7권 제10호, 한국콘텐츠학회, 2007.
- 안종운, 「문자(文字)의 미래상(未來像)과 문화국가(文化國家)의 문자정책(文字政策)」, 『어문연구』, 제13권 제2,3호 통합본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5.
- 연구동, 「Meanings of Writing」, 『언어학』, 제68권, (사)한국언어학회, 2014.
-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 『문자개념 다시보기』,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 전태현·조태영, 「찌아찌아족 한글 사용의 미래: 문자사의 관점에서」, 『한글』 제298호, 한글학회, 2012.
- 로이 해리스, 김남시 역, 「문자의 기호들(Signs of Writing)」, 연세대 출판부, 2013.
- 스티븐 로저 피셔, 박수철 역, 『문자의 역사(A History of Writing)」, 21세기 북스, 2010.
- 에드워드 홀, 최효선 역, 『문화를 넘어서(Beyond Culture)」, 한길사, 2013.
- 유발 하라리, 조현욱 역, 이태수 감수,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Sapiens)」, 김영사, 2015.
- 이언 크로프턴·제러미 블랙, 이정민 역, 『빅뱅에서 인류의 미래까지, 빅히스토리(The Little Book of Big History)」, 생각정거장, 2017.
- 장 클로드 슈미트·윤주옥·마쓰다 다카미·이혜민·최경은 외 6명, 『서양의 문자 문명과 매체』, 한국문화사, 2020.
- 제프리 샘슨, 신상순 역, 『세계의 문자 체계(Writing Systems)」, 한국문화사, 2000.
- I. J. 겔브, 연구동 역, 『문자의 원리(A Study of Writing)」, 연세대 출판부, 2013.
- Coulmas, F., *Writing System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2003.
- R. Jakobson, *Linguistics and Poetics*, 1958, (Originally presented at a conference on style held at Indiana University in the spring of 1958, then revised and published in <Style in Language>, ed. Thomas A. Sebeok (Cambridge, Mass.:MIT Press, 1960).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Lee Chankyu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ung-Ang University

1. Introduction
2. Origin and Evolution of Writing Systems
3. The Abstraction Process of Writing Systems
4. Advantages of Written Language and Emergence of Text-speech Language
5. Expanding Functions of Language and Changes in Written Language
6. Changes in Culture and Writing Systems
7.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8. Conclusion



1
It is important to note the difference between “written characters” (or “written text”) and “written language.” “Written characters” are symbols or letters with phonetic properties, while “written language” refers to any language activities that utilize characters.

1 — Introduc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predict how written language is likely to change in the future, both structurally and quantitatively. At present, the two central axes of human language are speech and text.

Although text offers some key advantages over speech, it also entails several disadvantages. Text is more normative than speech, and also requires more learning by the user, as well as more labor and tools for documentation. Such inconveniences may arguably negate whatever benefits are gained by written text.¹

Thus far, human language has been primarily centered on speech, but since the creation of writing and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written language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construction of civilization. In particular, the adv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fueled a new golden age of writing, and recent advancements in telecommunications methods and equipment are now eroding the boundaries between speech and writing. With the rise of personal telecommunication devices, written language has become less normative, with some even claiming that language as we know it is in danger of extinction. Furthermore, demands for explicitness and speed in telecommunication have led to the resurgence of pictographs. Amidst this whirlwind of change, predicting the future path of written language is essential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direction of human language activities.

In order to accurately forecast the future of written text, we must consider several key factors, starting with the origin and evolution of written characters and writing systems. Knowing why writing systems originally emerged can illuminate their advantages and future possibilities. Moreov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written language versus spoken language can reveal how the two types will change as they continue to interact and take on different roles.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writing systems and human cognitive abilities must also be examined. Crucially, the development of writing systems directly reflects humans’ unique cognitive ability for abstraction. Written characters began as hieroglyphic scripts, which gradually became more abstract as they evolved into phonemic characters with little or no connection to their original form or sound. One major exception is Hangeul, the Korean script, which is the only phonemic script with characters that visualize the properties of their respective sound. Given the recent

2
Anatomists estimate that early humans developed the physical capacity for verbal language between 300,000 and 200,000 years ago, when the larynx dropped to a position significantly lower than in other primates, allowing for a much wider range of sounds. Homo sapiens, who appeared around 150,000 years ago, had rounder tongues, longer necks, and lower larynxes than Neanderthals. These physical details allowed for more complex interactions among the tongue, lips, and larynx, providing a wider range of pronunciation and ultimately leading to the birth of language.

phenomenon of written language being replaced by pictographs, Hangeul can provide important clues for predicting future changes in written language.

In addition, any attempt to predict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must account for the basic functions of language. In charting the expanding functions of language and the role of writing systems within those functions, we must remember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written language is communication.

Written language is also closely related to overall changes in human culture. Most notably, writing systems have evolved in various forms in direct conjun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civilizations. For example, the emergence of printing in the fifteenth century triggered explosive growth in written language, while the advent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served as a catalyst for a new golden age of written language. Today, groundbreaking developments in digital technology are allowing written language to overcome some of its disadvantages, opening up an array of possibilities.

Finally, we must consider how writing systems have already significantly transformed huma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culture can be broadly divided between high-context cultures and low-context cultures, and the role of written language has evolved differently within each of them. Through an analysis of all of these factors, I will now offer some predictions about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2 — Origin and Evolution of Writing Systems

Both language and writing systems emerged and developed among humans through the confluence of many complex conditions. Homo sapiens are known to have started using relatively systematic languages around 200,000 to 150,000 years ago.² Archaeological excavations of sites dating to around 50,000 years ago (during the Middle Paleolithic Period) have uncovered stones and bones with orderly markings, which are believed to be the earliest evidence of human writing. In the next stage of writing, objects such as tally sticks, shell beads, and knotted cords were used to record information. Such early forms of proto-writing, which were likely used to express numbers or perform calculations, have been found at ancient sit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Peru and China. Subsequently, pictographs appeared around 14,000 years ago, during prehistoric times. Pictographs have also



3
Steven Roger Fischer argued that a complete writing system should meet three criteria: its purpose should be communication; it should consist of artificial graphic marks on a durable or electronic surface; and it should use marks that relate conventionally to articulate speech or electronic programming in order to achieve communication. See Steven Roger Fischer, translated by Park Sucheol, *A History of Writing*, Paju: 21st Century Books, 2010.

4
In general, human foreheads are more protruding than those of other animals. This 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frontal lobe (located behind the forehead), which is believ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abstract thought.

been widely discovered across the globe, including at sites of Mesopotamia, Egypt, Sumer, Maya, Native America, and China. However, ancient pictographs are generally considered to be visual expressions of events or thoughts, rather than writing systems for communication.³

The earliest known example that meets the criteria for a writing system is the cuneiform script used in the Sumer region of ancient Mesopotamia about 6,000 years ago. Initially, the cuneiform script seems to have been used to record quantities of goods. From then until the fifteenth century, a wide variety of writing systems appeared and developed through mutual influences among civilizations, including hieroglyphics, syllabic scripts, phonemic scripts, and featural scripts. The most advanced writing systems for delineating speech as writing are featural scripts, represented by Hangeul.

The birth of writ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ommerce, which created a greater need for record-keeping. Observing the evolution of writing systems, we can see that, as newer writing systems were invented, they moved away from hieroglyphic symbols towards characters and notations that were more closely linked to sound. Given that the use of language significantly enhanced humans’ cognitive abilities over time, the increasing abstraction of writing systems can be seen as a natural conclusion.

3 — The Abstraction Process of Writing Systems

As the human brain grew and advanced beyond that of other animals, so did our ability for abstract thinking. Since humans diverged from other primates about 7 million years ago, the volume of the human brain has drastically increased from 700cc to 1,800cc today. The concentrated expansion of the cerebral cortex stimulated brain activity, resulting in an increased ability to think inferentially and use various tools.⁴ Such abilities boosted the development of our conceptual thinking, enabling us to construct virtual worlds beyond what we can perceive with our sensory organs. Some have hypothesized that our capacity for spoken language can be attributed to the FOXP2 mutation gene, but this does not fully explain our ability to use highly abstract language systems. It is reasonable to speculate that early spoken language likely imitated sounds from nature. Then over time, as our ability to differentiate sounds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brain, the sounds were intentionally composed to express meaning.

The trajectory of written characters also reflects the development of

5
“Text-speech language” is a new concept that I have coined, referring to a system that delivers meaning via a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communication, encompassing systems for expressing spoken language as written language (STT: speech to text) and vice versa (TTS: text to speech). This mode of expression will become commonpl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anks to the language-process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xpansion of personal communication through smartphones. Integrating spoken and written language, text-speech language will likely lead to the emergence of new styles of language combining elements of text and speech.

abstract thought. Like sounds, early characters are believed to have been intended to represent forms and objects from nature, but they gradually became more abstract, evolving into arbitrary forms that represent spoken language. In summary, the first writing systems originated from the need to record transactions as commercial activities increased, using characters that were initially based on nature before steadily becoming more abstract in reaching their current form.

4 — Advantages of Written Language and Emergence of Text-speech Language⁵

Written language offers many advantages over spoken language, one of which is its dissemination. But comparisons betwee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should be divided between two distinct time periods: prior to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e., when people had to physically write characters) and after the twentieth century, when the advancement of global telecommunications blurred the boundaries betwee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specially the popularization of video, has enabled the emergence of “text-speech language,” wherein speech and text are expressed simultaneous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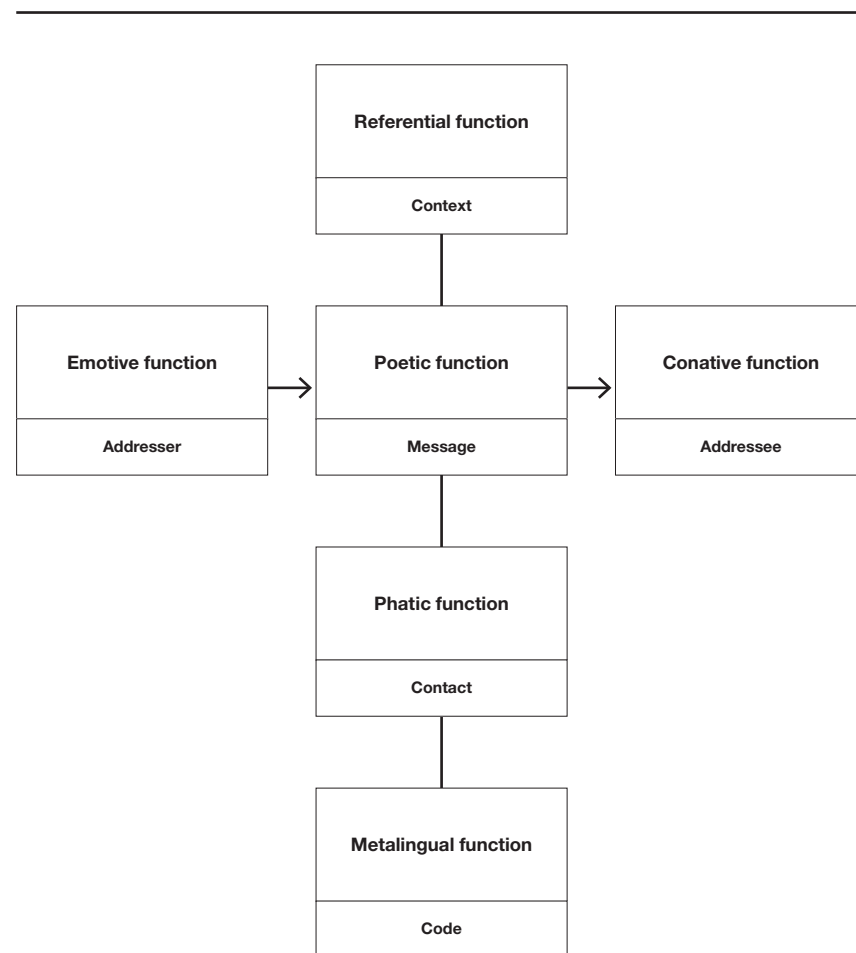
[Table 1] Characteristics of text and speech

Characteristics	Spoken language	Written language
Means of delivery	Speech	Text
Receptive sense	Auditory	Visual
Temporality	Concurrence	Permanence
Spatiality	Confined space (face-to-face)	No space restrictions (non-face-to-face)
Type of content	Simple information or phatic content	Capable of delivering abstract, logical and complex thinking
Type of delivery	Direct delivery only	Indirect delivery possible
Means of communication	Body	Various illustrations, diagrams, etc.
Content revision	Impossible	Possible
Normativity	Low	Strict
Dependence on context	High	Low
Emotional delivery	High	Low
Accessibility to expression	Easy	Difficult
Tools	No	Yes
Information verification	Impossible	Possible



5 — Expanding Functions of Language and Changes in Written Language

Language serves many different functions, six of which were famously described by Roman Jakobson, as shown in [Fig. 1].



[Fig. 1] Functions of language by Roman Jakobson (1958)

However, Jakobson's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language can now be seen as too limited, being primarily based on a speech-oriented perspective centered on an addresser and addressee. Given the ever-increasing significance of language in today's culture and society, a broader view of the functions of language is required.

In addition to the six language functions described by Jakobson, other functions include:

- ① Homogenizing (for users of the same language)
- ② Creative function (neologisms, lies, etc.)
- ③ Performative function (promises, proposals, questions, warnings, etc.)
- ④ Reflecting the real world
- ⑤ Constructing virtual worlds
- ⑥ Constructing thinking systems
- ⑦ Cultural transmission and propagation (records and preservation)
- ⑧ Forming knowledge of the world
- ⑨ Contextual supposition (speech)
- ⑩ Transcending spatial limits in communication (text)
- ⑪ Verifying information (text)
- ⑫ Artistic function, such as calligraphy (text)
- ⑬ Forming the basis for legal systems (text)
- ⑭ Storytelling

As society continues to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language will expand accordingly, acquiring new fun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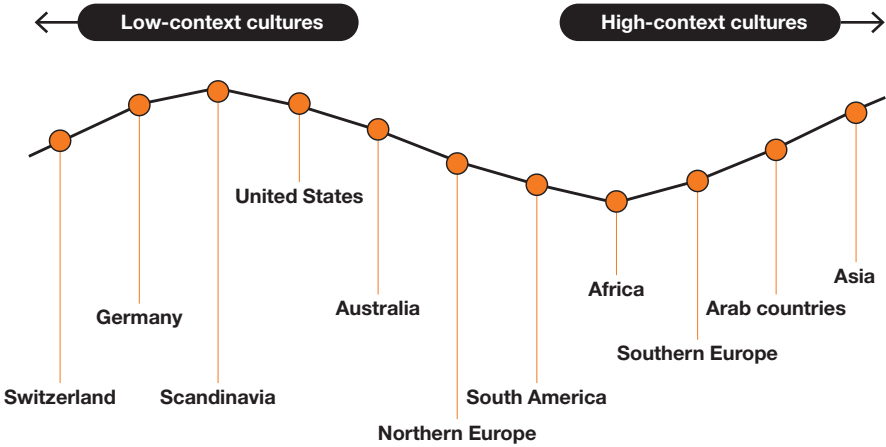
6 — Changes in Culture and Writing Systems

Since the star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mid-eighteenth century, technology has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the most profound changes in human life and culture. Now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no longer limited to a specific region, but is driving cultural changes globally. Culture serves as a type of frame for society as a whole. This cultural framework can be seen as a feedback loop, being created by individual people and events which are simultaneously influenced by the framework itself. In terms of communication, the world can be divided between high-context cultures and low-context cultures, which were described by Edward Hall [Table 2]:

[Table 2] Edward Hall's model of high-context and low-context cultures from communication perspective (1959)

	Characteristics
Low-context cultures	• Explicit meaning expressed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 Emphasis on individualism • Emphasis on linear logic • Frequent use of direct and verbal expressions • Prioritize logic in expressing ideas • Task management based on rules or explicit agreements • Highly structured messages
High-context cultures	• Implicit meaning based on sociocultural context • Emphasis on group consciousness • Emphasis on spiral or circular logic • Frequent use of indirect and nonverbal expressions • Prioritize emotions in expressing ideas • Task management based on implicit understanding or intuition • Ambiguous messages

In 1959, when Edward Hall first posited the notion of low-context and high-context cultur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eemed clear. At that time, based on Hall's standards, the countries of the world might have been ranked or divided as follows:



[Fig. 2] Countries with high-context and low-context communication

But thanks to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revolution that began with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the distinctions between low-context and high-context societies have become increasingly ambiguous. The changes have been especially pronounced in traditional high-context societies, most of which are now transitioning into low-context societies (albeit at different rates) thanks to the active adoption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Indeed, high-context communication is now largely limited to countries with a low permeation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overall shift in communication towards low-context culture has been most evident in large cities in countries like South Korea, Japan, and China. Conversely,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any examples of low-context cultures transitioning to high-context culture.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the shift towards low-context culture,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lecommunications, which has reduced barriers between countries; rapid urbanization; the spread of individualism; and even the impact of infectious diseases caused by recurring viruses. As world cultures diversify and the intimacy between individuals weakens, low-context communication styles are becoming more prevalent.

From a traditional perspective, low-context cultures tend to have more specialized languages, a stronger emphasis on rules and regulations, and a diminished phatic function in language as compared to high-context cultures. However, driven by the advancement of telecommunications, urban expansion, and multiculturalism, the newly emerging “neo-low-context cultures” have taken on a slightly different form. We are now witnessing the appearance of new communication styles based on the increasing dualization between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interac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new styles of low-context communic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overall amount of communication has increased in the last ten years. In particular, non-face-to-face communication via telecommunications devic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now accounting for more than 40% of total communication for the average individual. With the intimacy of relationships decreasing, contemporary people generally feel more comfortable communicating via text, rather than phone calls, and conducting work-related conversations through documents or texts. Hence, the total volume of text-based communication continues to grow, with one-way, asynchronous communication increasing over simultaneous,



immediate communication. A related development has been the overall decrease in the use of long sentences.

Also in the last ten years, the proportion of phatic communication that occurs in face-to-face communication has significantly decreased. While people still gather in small groups to communicate face-to-face, many people now find it difficult to maintain face-to-face communication with another individual for more than thirty minutes.

These changes in communication styles have also influenced written language. With the rise in text-based communication, the formality of written text has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colloquial elements. One colloquial element of particular note has been the rapid prevalence of emojis, which are images used to add emotion to text. The tremendous increase in text-based communication, which many people now use even for direct interactions in shared spaces, has been accompanied by the increasing use of captions and subtitles in TV and mass media. This development seems to reflect feedback that the insertion of subtitles to supplement sound and speech can significantly enhance viewers' understanding of a program.

Another trend has been the re-emergence of pictographs, which include pictograms (graphic symbols used to convey a certain meaning) along with emojis and emoticons. But unlike the pictographs and hieroglyphics that formed the basis of early writing systems, which generally imitated objects from the natural world, today's pictographs are typically related to human activities. The wide dissemination of pictographs and pictograms is related to their universality, which transcends language barriers, and their capacity to be easily and intuitively understood.

Finally, neo-low-context cultures have also shown a tendency for shorter language expressions, seemingly reflecting the contemporary preference for intuitive understanding over lengthy explanation.

7 —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Writing systems have many interdisciplinary characteristics relating to linguistics, art, philology, history, psychology, cultural studies, sociology, media communication studies, computer engineering, and more. Thus, writing systems can be analyzed from numerous academic perspectives, all of which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iscussing how they might change in the future.

6

Here, the term "digital text" refers to any characters used for documenting or communicating via digital technology.

7

In general, addressers tend to find speaking easier than writing, while addressees find reading less energy-consuming than listening.

1) Transition to the Era of Digital Text⁶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ext are closely related to the tools and means used to record text. Just as the first "golden age of text" was engendered by the invention of paper and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the advancement of digital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devices has now triggered the second golden age of text. Given the limitations of analog materials such as paper for recording text, the use of digital text is expected to continue to rise in the future.

A) Increasing Use of Digital Text

Digital text provides many significant advantages over handwritten or printed text. Offering the ability to freely write, revise, edit, save, share, and print, digital text is incomparably more convenient than previous modes of text. Indeed, digital text seems to maximize all of the proposed benefits of written language, which was originally created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spoken language, which is easy to use but difficult to store or preserve.⁷ Digital text is almost as easy to use as speech and is no longer subject to some of the previous inconveniences associated with written language, thanks to the wide promulgation of smartphones and other digital devices among contemporary people. The expansion of digital text has also been ameliorated by the development of various fonts. With the help of artificial intelligence, people can now develop their own fonts, while technologies such as auto-complete use previously entered content to make the input of text faster and easier. Moreover, new input methods that convert speech to text or vice versa allow users to enjoy the advantages of both spoken and written language. As devices like smartphones and tablets become more advanced, the use of digital text is almost certain to increase,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neo-low-contextual cultures.

B) Pictographs

One of the drawbacks with both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is the periodic need for lengthy explanations in certain cases. To compensate for this shortcoming, we have recently seen a rapid increase in the use of pictographs, which include pictograms (graphic symbols used to convey a certain meaning), emojis, and emoticons. For example, a pictogram such as [Fig. 3] is much more intuitive and efficient than a written sentence such as "Please do not smoke in the car." In this regard, the use of pictographs will likely continue to increase. Since the invention of characters, a distinction has



[Fig. 3] No Smoking





[Fig. 4] Examples of
sports pictograms

(Olympic & para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design by Haam Younghoon)

been maintained between text, which is understood by reading, and images, which are understood by simply viewing.⁸ However, as images become more simplified and abstract, they increasingly carry segmented meanings, and thus begin to replace text. Pictograph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 Pictograms

Pictograms are graphical symbols or icons designed to convey important information in a way that can be intuitively understood by anyone, regardless of their native language.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sports pictograms [Fig. 4]. Pictograms share some similarities with hieroglyphics, in that they also attempt to convey meaning through abstract and symbolic representation. Just as written characters developed from hieroglyphics into phonemic characters via a process of abstraction, pictograms will likely evolve from symbols that can be understood merely by looking into symbols that require some degree of reading.

- Emojis and Emoticons

One of the limitations of written language is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emotions of the addresser solely from the written expression itself. For example, if you receive a message that says, "Come here quickly," it is impossible to tell whether the sender is feeling angry or affectionate. As a result, people have been using various methods to indicate emotions in written conversations. Two of the most popular recent methods are emojis, which are pictorial representations of emotions (such as 😊, 😐, 😞, and 😄), and emoticons, which are icons or characters formed by punctuation symbols, such as (- ^ ▽ ^ -) and σ(≥ε≤ο).

At present, many people insert emojis or emoticons into written text to indicate their respective emotional state. In the future,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hould provide new methods for expressing text-speech language, for allowing written and spoken language to be shared simultaneously, and for adding emotional context to written text.

Because today's pictographs can only be seen and not read, their means of communication is limited. Written language, on the other hand, can be both seen and read, and thus holds some intriguing potential for expansion. To further stimulate the use of pictographs in the future, some system of rules for reading and conveying them may need to be developed.

C) Methods to Complement Written Language

- Infographics and Motion Graphics

"Infographics" (a portmanteau of "information" and "graphics") are a means for visualizing information in a graphic format that is designed to make the information easier to understand. Unlike raw visual images, infographics can be considered as processed visual information that interprets, describes, or explains the content. Common examples include charts and traffic maps. Given contemporary people's general disdain for writing or reading long passages of text, infographic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as a more intuitive way of conveying and explaining information. They are particularly popular on the internet, with various websites using them to replace long textual descriptions or explanations. As digital recording devices become more portable, infographics will appear in even more diverse forms, along with motion graphics.⁹

- Animation and Illustr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plain text came to be established as the authoritative medium for transmitting information. In conjunction, print media that combined images with text, such as comic books, were denied authority, being reduced to sources of entertainment. This dismissal is apparent in the English name "comic" books. Hence, for many years in the publishing industry, illustrations were typically reserved solely for children's books. Through the influence of TV and other media, however, contemporary people have developed a preference for images and video. As a result, the number of graphic novels and comic books for adults is steadily rising, and even more "serious" books with academic and intellectual authority are being published in comic formats. Animation and illustrations provide many benefits, as they can greatly simplify lengthy textual explanations and stimulate our intuitive imagination. Written text offers unlimited possibilities for the imagination, but it can be difficult to visualize. Conversely, animation and illustrations limit the imagination, but can be immediately visualized with ease. Since humans instinctively choose options that require less energy, we tend to prefer more intuitive methods, which suggests that the trend of written text being supplemented or replaced by animation and illustrations will become even more pronounced in the future.



2) Mutual Conversion of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eech-to-text (STT) and text-to-speech (TTS) technologies are becoming widespread, erasing the boundary betwee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Real-time conversion of speech to subtitles is already being used in video broadcasts, and should soon be available on smartphones as well. Beyond its obvious benefits for people with visual or auditory impairments, this technology significantly improves the efficacy of language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for everyone by activating two sensory organs. As the use of digital devices for communication continues to increase, the text-speech language method, which combines spoken and written language, is expected to become more prevalent.

A) Text-speech Language

Following emojis and emoticons, other ways of adding emotions to written text should become more common. For example, with text-speech language, digital devices could learn to detect the emotions of the addresser, either while converting spoken words to written text or vice versa, and then display those emotions as part of the resulting message. Of course, the current system of emojis and emoticons will likely remain in use for some time, but more diverse methods for sharing emotions will also emerge.

Among the various methods that could be anticipated, the most likely candidate would seem to be the use of fonts that express emotions. It is easy to imagine that digital devices will soon be able to automatically recognize and display fonts that represent specific emotions such as joy, anger, fear, or annoyance. This is only one of many possible methods for expressing emotions that will likely emerge. The characteristics of text-speech language, in which speech and text are expressed together, are as follows.

[Table 3] Characteristics of text-speech language

Characteristics	Text-speech language
Means of delivery	Speech + text
Receptive sense	Auditory + visual
Temporality	Both concurrency and permanence possible
Spatiality	No spatial restrictions
Face-to-face	Both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possible
Type of content	No restrictions on delivered content
Type of delivery	Both direct and indirect delivery possible
Means of communication	Body and other auxiliary means
Content revision	Possible
Normativity	Relatively free
Dependence on context	Low
Emotional delivery	High
Accessibility to expression	Easy
Tools	Many
Information verification	Possible

However, even if text-speech language gains wide popularit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will still be maintained.

3) Restructuring Types of Character Systems

Through history, as societies and populations grew and became more complex, spoken language gained a certain level of normativity, allowing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systems for written characters. Two of the earliest examples are the cuneiform script of Mesopotamia region and the system of Chinese characters, after which an array of related character systems were created. Eventually, the Greek alphabet, which was initially based on Phoenician script, became the dominant script in Europe, while Chinese characters were predominantly used in Asia prior to the development of new character systems, including Hangeul. In the early days of writing systems, text was a tool of power. With the advent of printing technology, however, the practice of writing became more common and the power of monopolizing text was weakened. Even so, the majority of



languages disappeared in history without ever having developed a writing system. As of 2022, there are about 6,000 languages worldwide, but only around 180 writing systems.¹⁰

With the rise of internet telecommunications, many character systems are rapidly being restructured to incorporate the Roman or Latin alphabet used by Anglo-America. Even Chinese characters, which have been in use for more than 5,000 years, are generally typed into computers using Pinyin, a Romanization system. As internet telecommunications continue to flourish, the influence of the Latin alphabet will likely grow even stronger. One of the most notable and auspicious contemporary character systems is Hangeul, the unique script of Korea, which is not only a highly advanced featural script, but also takes the form of a phonemic syllabic script, making it very suitable for digital text input. Nonetheless, given the great abundance of digital content recorded in the Latin alphabet, its influence on Korean language content will gradually increase as well.

There is a historical precedent for the international unification of characters, namely the Indian or Arabic numeral system.¹¹ Although the Roman alphabet and Chinese characters contained their own numeral systems, they could not compete with the dominant Arabic numeral system that included the concept of zero. While there are some ke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ses, the Latin alphabet is now spreading in a manner similar to Arabic numerals. Despite some disadvantages, such as the lack of direct correspondence between written characters and pronounced sounds, the Latin alphabet is now being used for an overwhelming share of global language activities. To become prevalent in the digital world, a set of written characters must not only be a phonemic script, but must also have been used for a high percentage of existing content. The Latin alphabet meets both of these conditions.

As for Hangeul, it uses a syllable structure consisting of initial, medial, and final sounds, which makes input somewhat difficult, but its readability makes it an excellent character system for computers and digital devices. However, because of the limited number of Hangeul users, the share of Hangeul content on the internet is relatively low, hindering its potential for expansion in character usage. Thus, further efforts to promulgate Hangeul content in the virtual world are required.

8 — Conclusion

In this article, I have attempted to predict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by considering the origins, evolution, and usage of writing systems, as well as their relationship to the human capacity for abstract thought. Acknowledging that changes in writing systems must occur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world culture, I have also examined the appearanc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of so-called “neo-low-context cultures,” a recent development in contemporary communication culture. As our world becomes progressively more diverse and complex, language should continue to take on a much wider range of functions, beyond the six functions posited by Roman Jakobson in the late 1950s. This expansion of functions will surely extend to written language, which is one of the core constituents of linguistic activities. Based on these observations, here are my predictions about the future of writing systems:

- ① The use of digital text will continue to increase for the foreseeable future.
- ② The use of pictographs (including pictograms, emojis, and emoticons) will increase, and new types of pictographs will emerge.
- ③ As the circulation time for information decreases, due to various social change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long passages of text consisting solely of written language will diminish, with a concurrent rise in the use of infographics, motion graphics, illustrations, and animations.
- ④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new form of text-speech language, which simultaneously employs spoken and written language, will become more prevalent in linguistic activities. As it enhances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and delivery, this method will expand in various ways.
- ⑤ The number of writing systems currently in use (approximately 70) will decline as these systems fail to adequately adapt to the digital environment. Some of these languages and writing systems will be gradually replaced by the Latin alphabet, which will continue to expand based on its current prevalence on the internet.

Just as human languages are not fixed, writing systems also change over time. Some writing systems go extinct, while new ones emerge. Through history, written language—the use of characters in linguistic activities—has evolved in various forms and will continue to do so. Observing the changes in written language can be an effective way to gauge not only the changes in human linguistic activities, but also the direction of human culture as a whole. Therefore, continuous attention and interest in this area are necessary.

References

- Ahn Byung-Hak, "Typography in Epistemological Change of Letter Concep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7, no. 10, 2007.
- Ahn Jongun, "Future of writing systems and literary policy of the Cultural State," *The Society for Korean Language & Literary Research*, vol. 13, no. 2-3, 1985.
- Bea Bo-eun, *A Study on Terminology of Graphemics and Classifying Devices of Writing Systems*, Graduate School of Kyungnam University, 2013.
- Chun Taihyun & Cho Taeyoung, "The Future of Hangeul-based Cia-Cia Script: A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Writing System," *HAN-GEUL*, no. 298, 2012.
- Edward Hall, translated by Choi hyoseon, *Beyond Culture*, Seoul: Hangil-sa, 2013.
- Florian Coulmas, *Writing System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2003.
- Gelb Ignace, translated by Yurn Gyudong, *A Study of Writing*, Seoul: Yonsei University, 2013.
- Geoffrey Sampson, translated by Shin sangsun, *Writing Systems*, Seoul: hankookmunhwa-sa, 2000.
- Ian Crofton & Jeremy Black, translated by Lee Jungmin, *The Little Book of Big History*, Seoul: Maekyung Publishing, 2017.
- Institute of Humanities, *Rethinking the Concept of Writing Systems*, Yonsei University Press, 2013.
- Jean-Claude Schmitt et al., *Western Writing systems Civilization and media*, Seoul: hankookmunhwa-sa, 2020.
- Kim Nam-see, "Writingform ; Beyond the Opposition of Writing and Image,"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vol. 13, no. 4, 2012, pp. 15–24.
- Roman Jakobson, *Linguistics and Poetics*, 1958, (Originally presented at a conference on style held at Indiana University in the spring of 1958, then revised and published in <Style in Language>, ed. Thomas A. Sebeok (Cambridge, Mass.:MIT Press, 1960).
- Roy Harris, translated by Kim Nam-see, *Signs of Writing*, Yonsei University Press, 2013.
- Shin Jaeho, "About the Role of Type," *Journal for Design History*, vol. 2, no. 1, 2021.
- Steven Roger Fischer, translated by Park Sucheol, *A History of Writing*, Paju: 21st Century Books, 2010.
- Yurn Gyudong, "Meanings of Writing," *EONEOHAG*, vol. 68, 2014.
- Yuval Noah Harari, translated by Cho Hyunwook,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Seoul: Gimmyoung-sa, 2015.



전시 총괄

김주원

전시·도록 기획

박혜원 신유진

전시 디자인

최유진 홍지원

자문

국립국어원

김태식 (연합뉴스)

남기춘 (고려대학교)

박영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서동철 (서울신문)

울산암각화박물관

이제훈 (한국미술정책연구원)

이찬규 (중앙대학교)

이호영 (서울대학교)

장인경 (철박물관)

전시독후감

황치영

번역·감수

박명숙·필립마허(영)

한국외대통번역센터(중·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점자)

전시 연출·시공

(주)엠아이티존

전시 참여 디자이너

김은정 박상은 정현정 최지우

김종근 이재무

전시 영상

스튜디오 틸름

자료 협조

- 1부

문화재청

울산암각화박물관

- 2부

국제올림픽위원회

네이버

이지연

중앙일보

카카오

함영훈

Fred Benenson

- 3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노연서

대통령기록관

더핑크퐁컴퍼니

문화체육관광부

빅씨스

사이언스북스

아카넷

이 남자의 cook

작가정신

하루한끼

학교재

현대지성

203 인포그래픽연구소

STUDIO JHS

영상 출연

노연서 박준호 복동혁 이재무

정승은 정원석 정현정 홍지원

사진 촬영

김영광

도록 논고

이찬규 (중앙대학교)

도록 교정·교열

오동숙 이예지 장윤정 정세희

도록 제작·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정유진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ISBN

979-11-983361-0-1 (03060)